

총.만.국 커뮤니티

www.chongmanguk.co.kr

정 오 표
교재 구입
오류 신고
내용 문의
\$현금 이벤트\$

- *문제를 풀기 전에 반드시 수정 사항을 다운 받아 보길 바랍니다.
- *오직 총만국 커뮤니티에서만 교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서점에서 구입 불가)
- *문제 혹은 해설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답변해 드립니다.
- *단 한 글자의 오타라도 신고해 주세요.
(★1건 당 1,000원 씩 현금 바로 지급)
- *교재에 대한 리뷰 및 후기를 기다립니다.
(★5,000~20,000원의 현금 바로 지급)

*교재명: 총력만능국어 I
수능 (상)편 [해설집]
*교재 버전: 2017-01
*퍼낸곳: 최군 출판
*지은이: 최영수
*정가: 15,000원

차례

총만국 I

수능 (상)편

1회: 2017 수능.....	1P.
2회: 2016 수능 A.....	52P.
3회: 2016 수능 B.....	101P.
4회: 2015 수능 A.....	149P.
5회: 2015 수능 B.....	194P.
6회: 2014 수능 A.....	248P.
7회: 2014 수능 B.....	295P.

총만국 II 수능 (하)편

1회: 2013 수능
2회: 2012 수능
3회: 2011 수능
4회: 2010 수능
5회: 2009 수능
6회: 2014 예비 수능 A
7회: 2014 예비 수능 B

총만국 III 평가원 6·9월 (상)편

1회: 2017 9월
2회: 2017 6월
3회: 2016 9월 A
4회: 2016 9월 B
5회: 2016 6월 A
6회: 2016 6월 B
7회: 2015 9월 A

총만국 IV 평가원 6·9월 (하)편

1회: 2015 9월 B
2회: 2015 6월 A
3회: 2015 6월 B
4회: 2014 9월 A
5회: 2014 9월 B
6회: 2014 6월 A
7회: 2014 6월 B

기출은 진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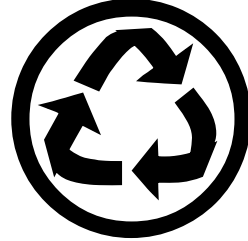
수능의 시작과 끝은 기출!
출제 경향이 바뀌어도
기출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총만국 시리즈
항상 곁에 두고 공부합시다!

시중 교재에서 절대 볼 수 없는, ★총만국 시리즈 특징★

1. 고 퀄리티의 자세한 해설
2. 모든 문제와 선지의 정답 및 오답 근거 분석
3. 문제 풀이의 (팁 & 법칙) 최다 보유
4. 문제와 관련된 기본 이론 제공
5. 각종 통계자료 최다 제공
(등급컷, 정답률, 선지별 선택률, 오답률 top 순위 등)

마르고 닳도록, 마더텅, 자이스토리, 매삼비 등
본 교재보다 더 마음에 드는 해설의 교재가 있다면
바로 환불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N회독 시스템



- 1회독: 정답을 신속히 찾는 데 중점
- 2회독: 정답 및 오답의 근거를 철저히 분석
- 3회독: 해설의 70%이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1회독하면 30%를 알게 되고
2회독하면 60%를 알게 되며
3회독하면 80%이상 내 것이 된다.

1회독: 제한시간 내에 정답을 신속히 찾아야 하며 가능하면 한 회 차를 80분 동안 한 번에 풀 길 권한다.

(시간 제한성의 실전 감각과 등급컷 확인 용이)

2회독: 정답을 찾는 공부가 아니라 시간제한 없이 정답과 오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정확히 찾고 해설과의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

3회독 이상: 정답을 찾기까지의 사고 과정과 문제 풀이와 관련된 지식, 팁, 법칙 등 해설의 70%이상을 설명 혹은 메모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전 회독의 단기 기억력 효과를 최소화하고 수능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서, N회독은 한 교재를 완료 후 즉시 반복해서 보는 것보다 총만국 시리즈의 모든 교재를 전체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N회독을 위해서는 별도의 문제집이 더 필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있던 교재 연필로 풀고 지워서 다시 풀기
기출 문제 다운 출력
총만국 문제집만 재구매

1회

2017 수능

정답

1. ②	2. ④	3. ④	4. ④	5. ⑤
6. ④	7. ②	8. ⑤	9. ⑤	10. ③
11. ①	12. ⑤	13. ③	14. ③	15. ④
16. ②	17. ④	18. ⑤	19. ⑤	20. ②
21. ④	22. ④	23. ⑤	24. ③	25. ③
26. ⑤	27. ②	28. ②	29. ①	30. ②
31. ④	32. ③	33. ⑤	34. ④	35. ①
36. ③	37. ③	38. ④	39. ⑤	40. ①
41. ④	42. ①	43. ③	44. ⑤	45. ①

등급컷

등급	원점수	비율(%)
1	92	4
2	85	11
3	78	24
4	69	40
5	56	60
6	39	77
7	25	90
8	18	96

영역별 평균 정답률

영역	평균 정답률
종합	77.5
화법+작문	92
문법	68
독서 (비문학)	71
문학	79

오답률 TOP 7 문항

순위 (오답률)	문항 · 영역	제재	역대 수능 9개년 중
1위(72%)	13번 문법	중세+현대 국어	3위
2위(71%)	39번 사회	공정한 보험	5위
3위(61%)	35번 과학	반추동물의 소화	13위
4위(43%)	19번 인문	총체주의	48위
5위(42%)	34번 과학	반추동물의 소화	*
6위(41%)	42번 어휘	*	*
7위(39%)	18번 인문	총체주의	*
7위(39%)	41번 사회	공정한 보험	*

※1~2, <학생의 발표>

1. <화법>

#발표 계획 #보조 자료 #평가 기준의 척도 #열거_반복_대구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1%	4%	91%	2%	3%	0%

◆정답 ②

*1)(화면을 보여 주며) 이 그림은 <총석정>입니다. 2)정선은 수직으로 죽죽 내려 긋는 수직준법을 사용해 돌기등을 표현하고 돌기등 위에 있었던 소나무를 생략함으로써 다른 자연물보다 돌기등을 더욱 부각했습니다. 3)(화면을 전환하며) 이 그림은 <삼일포>입니다. 4)정선은 그리고자 하는 대상과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원근을 표현하는 평원법을 사용하여 호수의 광활함을 부각했습니다. [2문단]

*5)(화면을 보여 주며) 이 그림이 바로 <낙산사>입니다.~6)이 점처럼 보이는 것들은 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선비들로 이 그림 속의 점경 인물입니다. 이렇게 정선은 자연을 즐기고 있는 점경 인물을 등장시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드러냈습니다. [끝문단]

⇒청중이 발표 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특징 2,4,6)이 드러난 사례를 시각 자료(1,3,5)로 제시해야지.

☞시각 자료: 화면 속 ‘그림’

▶보조 자료의 종류: 시각적 (그림, 도표, 통계, 지도 등) 시청각 (동영상)

※사례와 예시에 대해 알아보자!

ㄱ. 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과거의 일)

ㄴ. 예시: 예를 들어 보임.

◆오답 풀이

①

⇒시각 자료와 그 특징은 제시되어 있지만 참고한 서적들은 열거는커녕 단 한번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참고한 서적들이 나타나 있다면 서적의 이름이 언급되어야 한다. 출제자는 그림의 이름(‘총석정’, ‘삼일포’, ‘낙산사’)을 서적의 이름으로 착각한 수험생들을 위해 매력 오답으로 설정한 것이다.

※다양한 평가 기준의 척도를 알아보자 (매년 출제되는 개념☆)

- ㄱ. 타당성: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 ㄴ. 합리성: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 →(상식적)
- ㄷ. 객관성: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
- ㄹ. 공정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성질
- ㅁ. 정확성: 바르고 확실한 성질
- ㅂ. 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의 타당성이 높아져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의견에 신뢰가 간다.

※열거, 반복, 대구에 대해 알아보자! (매년 출제되는 개념☆)

ㄱ. 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포도,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ㄴ. 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 (눈,눈,눈이 내린다!)

☞운을 형성!

ㄷ. 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

(공 심은데 콩나고, 팔 심은데 팔난다.) ☞운을 형성!

③

*제 발표가 정선의 산수화전을 관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발표의 목적과 관련)이상 발표를 마칠 것입니다.

[끝문단]

⇒시각 자료(‘총석정’, ‘삼일포’, ‘낙산사’)에는 각 대상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이지만 전체 발표 내용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선지가 ‘~마무리해야지’라고 했기에 지문에서 마무리 부분만 보면 된다. (☆다른 부분까지 고려했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한 셈!) 지문에서 두 문장에 불과한 끝문단인 마무리 부분만 보더라도 전체 발표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④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서는 검재 정선의 산수화전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선의 산수화를 감상할 때 도움이 되도록→(발표의 취지&목적과 관련) 정선의 ‘관동팔경’을 중심으로 정선의 산수화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

⇒시각 자료(‘총석정’, ‘삼일포’, ‘낙산사’)에는 각 대상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이지만 발표 순서가 안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선지가 ‘~발표를 시작해야지’라고 했기에 지문에서 시작 부분만 보면 된다. (☆다른 부분까지 고려했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한 셈!) 지문에서 두 문장에 불과한 1문단인 시작 부분만 보더라도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것이 아님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⑤

⇒시각 자료(‘총석정’, ‘삼일포’, ‘낙산사’)에는 각 대상의 특징이 나타나 있는 것이지만 발표 대상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역사적 사건>의 제시 여부는 연도를 나타내는 시대와 관련된 말을 찾아보는 것이 빠르다.

★대단히 유용한 팁★

♣공통 선지의 법칙!

☞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 발문형 문제에서 선지의 내용 중 최대 공통점(뺀은 꼴)의 한 쌍이 존재하는 경우 그 둘 중 하나의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약 70%이다.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②, ⑤는 <대상의 이해 관련>&<시각 자료로 제시해야지>가 공통된다.

② 청중이 발표 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특징이 드러난 사례를 시각 자료로 제시해야지. →(정답 ☆)

⑤ 청중이 발표 대상의 발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표 대상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시각 자료로 제시해야지.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②, ⑤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유사한 매력 오답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정답을 닮은 매력 오답이 나올 때가 있다. 수험생은 이를 역이용해 닮은 꼴 선지 쌍의 정답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2. <화법>

#소개 #메모 #특성 바꿔치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6%	1%	1%	1%	96%	0%

◆정답 ④

*(화면을 보여 주며) 이 그림은 <총석정>입니다. 정선은 수직으로 죽죽 내려 가는 <수직준법>을 사용해 돌기둥을 표현하고 돌기둥 위에 있었던 소나무를 생략함으로써 다른 자연물보다 돌기둥을 더욱 부각했습니다. (화면을 전환하며) 이 그림은 <삼일포>입니다. 정선은 그리고자 하는 대상과 같은 높이에서 1)수평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원근을 표현하는 <평원법>을 사용하여 호수의 광활함을 부각했습니다. [3문단]

⇒<삼일포>에서 호수의 광활함을 드러내는 데 사용한 방법은 수직준법이 아니라 <평원법>이다. <수직준법>이 사용된 것은 <총석정>이다.

▶지문에서 2개 이상의 대상과 각각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으면 이 특성을 바꿔치기한 부적절한 선지는 반드시 출제된다.

◆오답 풀이

①

*<정선의 산수화>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선은 실제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1)생략이나 변형의 방식 등을 통해 2)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정취를 부각함으로써 ‘환’을 실현했습니다. ‘관동팔경’의 산수화들을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죠. [2문단]

⇒<정선의 산수화>에는 생략이나 변형의 방식 등을 통해 1) 실제 산수가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인 ‘환’이 실현 2)되었음.

②

*정선의 산수화가 가진 또 다른 특징은 1)<점경 인물>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점경 인물이란 산수화에 등장하는 간단하고 작게 묘사된 인물인데요, 이들은 주로 명승지를 여행하며 2)자연과 교감하는 친자연적 존재로 표현됩니다. [4문단]

⇒정선은 자연과 교감하는 친자연적 존재 2)인 <점경 인물>을 산수화에 등장 1)시킴.

③

*(화면을 보여 주며) 이 그림은 <총석정>입니다. 정선은 수직으로 죽죽 내려 가는 수직준법을 사용해 돌기둥을 표현하고 돌기둥 위에 있었던 1)소나무를 생략함으로써 다른 자연물보다 <돌기둥>을 더욱 부각했습니다. [3문단]

⇒<총석정>에서는 일부의 자연물을 생략해서 돌기둥을 더욱 부각함. 1)

⑤

*(화면을 보여 주며) 이 그림이 바로 <낙산사>입니다.~이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1)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선비들로 이 그림 속의 <점경 인물>입니다. [5문단]

⇒<낙산사>에서는 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인물을 <점경 인물>로 형상화했음. 1)

※3~5, <토론>

3. <화법>

#공통 선지의 법칙 #입론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2%	1%	1%	1%	92%	4%

◆정답 ④

반대1: 1)홍보관 운영 동아리 선정을 추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주장) 2)<기존의 심사 방식>은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줄일 수 있고, 평가 기준 역시 매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왔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방식은 모든 동아리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할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구성원들이 동아리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고민하게 되므로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습니다. →(근거)

⇒<반대 1>은 <기존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근거2)로 삼아 새로운 방식을 반대1)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찬성 1'에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거나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없다.

▶대상의 개념 설명은 보통 '~은 ~이다'의 형식을 보인다. 선지에 '개념'이라는 말이 나오면 지문에서 일단 조사 '~은(는)'이 있는 말에 집중하자!

②

사회자: 그런데 기존 방식인 심사 방식 대신 1)새로운 방식으로 <추천 방식>을 요구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어,~

찬성1: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2)<추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반면에 3)<추천 방식>은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견해가 반영될 수 없습니다. 또한 추천 방식으로 한다면 홍보관 운영 동아리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동아리에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들이 시간과 노력을 불필요하게 들이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찬성 1>이 주장하는 '추천 방식'2)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1)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기대 효과3)를 언급하는 것이다.

▶지문에서 2개 이상의 대상과 각각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으면 이 특성을 바꿔치기한 부적절한 선지는 반드시 출제된다.

③

반대1: 1)기존의 심사 방식은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줄일 수 있고, 평가 기준 역시 매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왔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 1>은 기존의 심사 방식을 옹호1)할 뿐이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해결의 시급성 강조: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한 후 신속하게 적용해야 할 것임을 반복해서 말함.

⑤

반대1: 1)홍보관 운영 동아리 선정을 추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반대 1>은 새로운 방식인 추천 방식을 반대1) 할 뿐이지 그것의 부정적 측면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대단히 유용한 팁★

♣공통 선지의 법칙!

☞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 발문형 문제에서 선지의 내용 중 최대 공통점(답은 끝)의 한 쌍이 존재하는 경우 그 둘 중 하나의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약 70%이다.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④, ⑤가 새로운 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것이 공통된다.

- ④ ~새로운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정답 ★)
- ⑤ ~새로운 방식을~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언급~.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④, ⑤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유사한 매력 오답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정답을 닮은 매력 오답이 나올 때가 있다. 수험생은 이를 역이용해 닮은 꼴 선지 쌍의 정답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4. <화법>

#설명 #평가 기준의 척도 #인용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3%	1%	4%	1%	93%	1%

◆정답 ④

[B]

*1)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작년 2)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기준 중의 일부가 특정 동아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3)이런 점에서 평가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B]는 상대측이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1)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2)로 평가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3)

※다양한 평가 기준의 척도를 알아보자 (매년 출제되는 개념☆)

- ㄱ. 타당성: 사물의 이치에 맞는 옳은 성질
- ㄴ. 합리성: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성질 →(상식적)
- ㄷ. 객관성: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고 인정되는 성질
- ㄹ. 공정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올바른 성질
- ㅁ. 정확성: 바르고 확실한 성질
- ㅂ. 신뢰성: 굳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성질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공정하게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의 타당성이 높아져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의견에 신뢰가 간다.

◆오답 풀이

①

[A]

*1)추첨 방식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준비가 덜 된 동아리가 선정된다면 동아리 홍보관 운영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요?

⇒[A]는 상대측이 제시한 사례(→추첨 방식의 기대 효과)가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끝맺는 것1)이지 적합한 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와 예시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사례: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과거의 일)
- ㄴ. 예시: 예를 들어 보임.

☞엄밀히 보자면, <찬성 1>이 말한 '또한 추첨 방식으로 한다면 홍보관 운영 동아리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동아리에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부분은 실제로 일어난 과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례>가 아니라 기대 효과의 <예시>라고 해야 적절하다.

②

[A]

*1)추첨 방식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2)준비가 덜 된 동아리가 선정된다면 동아리 홍보관 운영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요?

⇒[A]는 상대측이 앞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1) 하지만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생길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대측이 진술한 내용에 대해 의문을 가질 뿐이다.2)

③

[B]

*1)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작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기준 중의 일부가 특정 동아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2)이런 점에서 평가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B]는 상대측의 주장 자체1)에 대해 의문을 제기2)하는 것이 주장 뒷받침하는 근거가 믿을 만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와 관련지어 출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조사 기관', '조사 날짜', '조사 대상자'를 정확히 밝히면 출처의 신뢰성이 높아짐

⑤

[A]

*1)추첨 방식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B]

*2)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A]와 [B] 모두 상대의 말을 인용1~2)한 것이지만 상대측이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지문 전체를 놓고 봐도 전문가의 설명이 언급된 곳은 없다.

◆출제자의 함정

☞인용의 주체는 [A], [B]인데 마치 상대가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한 것처럼 속이려 했음.

※인용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직접 인용: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옮김
→(큰 따옴표 있으면 직접 인용)
- ㄴ. 간접 인용: 남이 한 말을 화자의 말과 문맥 안으로 옮김

*엄마가 "오늘은 집 밖에 나가지 마!" 라고 했다. ☞(직접 인용)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간접 인용)

[2016 수능A 3번]의 지문으로 직접 혹은 간접 인용인지를 판단하는 문제가 출제됨!

▶ 지문에서 인용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먼저 큰 따옴표에 집중! 다음에, ~(라)고, ~다고, ~다는, ~라는 등의 말에 집중하자

5. <화법>

#대립 선지의 법칙 #토론 #분석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3%	2%	2%	1%	2%	93%

◆정답 ⑤

찬성1: 반면에 추천 방식은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견해가 반영될 수 없습니다. 또한 1)<추천 방식>으로 한다면 홍보관 운영 동아리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동아리에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들이 시간과 노력을 불필요하게 들이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추천 방식>을 도입하면 모든 동아리에게 선정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1)된다는 점을 들어 ㉡<추천 방식>이 ㉠<심사 방식>보다 더 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는 반대 측이 아니라 <찬성 측>이다.

▶ 지문에서 2개 이상의 대상과 각각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으면 이 특성을 바꿔치기한 부적절한 선지는 반드시 출제된다.

◆오답 풀이

①

찬성1: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1)<추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심사 방식의 평가 기준이 타당하지 않고, 평가자 주관에 개입될 수 있어 평가의 신뢰성이 낮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2)<추천 방식>은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견해가 반영될 수 없습니다.

⇒<찬성 측>은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없다2)는 점에서 ㉡<추천 방식>이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1)하고 있군.

②

찬성1: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1)<추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그리고 동아리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들이 2)시간과 노력을 불필요하게 들이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찬성 측>은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드는 ㉠<심사 방식>의 문제점을 ㉡<추천 방식>이 해소2)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 방식>이 적합하다고 주장1)하고 있군.

③

반대2: <추천 방식>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 동아리 1)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탈락할 수도 있죠.

⇒<반대 측>은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추천 방식>으로 인해 탈락할 수 있다1)는 점을 들어 ㉠<심사 방식>을 옹호하고 있군.

④

반대1: 기존의 <심사 방식>은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줄일 수 있고, 평가 기준 역시 매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왔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 1)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구성원들이 동아리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고민하게 되므로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 측>은 동아리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다1)고 주장하며 ㉠<심사 방식>을 지지하고 있군.

★대단히 유용한 팁★

♣대립 선지의 법칙?

☞ 선지의 일정한 패턴을 통해서 정답의 가능성을 파악하여 문제 풀이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선지의 내용 중 전체 혹은 그 일부라도 서로 반대(대립, 모순, 부정)의 맥락을 이루면 그 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지의 정답 확률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부정형 발문에서 자주 적용됨)

- 1대1 대립 (두 개의 선지 중 하나: 70% 이상)
- 1대2 대립 (1의 비율 선지: 80% 이상)
- 1대3 대립 (1의 비율 선지: 90% 이상)

*위 문제는 반대 측의 ㉠, ㉡에 대한 지지에 관해, (⑤는 ㉡을 지지)↔(③, ④는 ㉠을 지지) 하기 때문에 1대2 대립을 이룬다.

- ③ 반대 측은~㉠을 옹호하고 있군. →(㉠지지)
- ④ 반대 측은~㉠을 지지하고 있군. →(㉠지지)
- ⑤ 반대 측은~㉡이 ㉠보다 더 공평하다~. →(㉡지지) ☞(정답☆)

그래서 지문 및 발문과 상관없이 선지 ⑤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80% 이상이다.

▶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반대 맥락의 오답을 만드는 심리가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 쌍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

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6~8, <작문 계획 & 초고>

6. <작문>

#떠올린 생각 #반영 순서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91%	①	②	③	④	⑤
	2%	2%	3%	91%	2%

◆정답 ④

⇒ [A] 문단의 문장 순서대로 ㉠-㉡-㉢-㉣에 대응됨

㉠

[A]

*우리는 1)인터넷, 신문, 잡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면서 수많은 광고에 노출된다. [1문장]

⇒ 예상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예상 독자들이 광고를 접하고 있는 매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1)해야겠어.

▶ <구체적 제시>는 보통 대상의 '예시'에 해당한다.

㉡

[A]

*이러한 광고는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1)매체 발달에 따라 매체별 광고 기법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2문장]

⇒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유형의 광고가 나타나는 이유를 예상 독자가 궁금해할 수 있으므로 그 이유를 제시1)해야겠어.

㉢

[A]

*하지만 1)매체 이용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3문장]

⇒ 매체 이용자들이 광고에 대해 보이는 태도1)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

[A]

*이에 대응하여 1)매체 이용자들이 거부감 없이 광고를 수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광고 기법이 등장하고 있다. [끝문장]

⇒ 매체 이용자들의 광고 회피 경향에 대응해 새로운 광고 기법의 등장1)함을 제시해야겠어.

7. <작문>

#기사형 광고 #활용 방안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89%	①	②	③	④	⑤
	3%	89%	2%	5%	1%

◆정답 ㉡

[B]*기사형 광고는 1)<기사>처럼 보이기 위해 2)제목에서 특정 제품명을 드러내지 않으며, 전문가 인터뷰나 연구 자료 인용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독자의 관심을 끈다.

⇒ '△△샘물'이라는 제품명을 제목에 나타내지 않은 것2)은, 독자들에게 광고처럼 보이기 위한 기법이 아닌, <기사>처럼 보기1) 위한 예로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B]*기사형 광고는 기사처럼 보이기 위해 제목에서 특정 제품명을 드러내지 않으며, 전문가 인터뷰나 1)<연구 자료 인용>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독자의 관심을 끈다.

⇒ '물과 장수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인용>한 것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1) 위한 기법의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③

[B]*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1)독자들이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특집', '기획' 등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 '특집', '기획' 등의 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독자들이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1) 사항을 따른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④

[B]*그러면서 1)가격, 출시일 등의 제품 정보를 삽입하여 독자의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

⇒ '△△샘물'이라는 특정 제품에 대한 출시일과 가격 정보를 제시한 것은, 독자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1)하기 위한 기법의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⑤

[B]*또한 1)기자가 작성한 글로 착각하지 않도록 글 말미에 '글 ○○○ 기자'와 같은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 '글 ○○○ 기자'와 같은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독자들이 기자가 작성한 글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사항1)을 따른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8. <작문>

#초고 #문단 완성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2%	3%	2%	3%	1%	92%

◆정답 ⑤

♣①을 바탕으로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하고자 한다면, 정답은 ①의 2가지 사항을 언급해야 한다.

- 1) 새로운 광고 기법의 문제점
- 2) 매체 이용자들의 비판적 인식 촉구

*광고를 유용한 정보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매체 이용자에게 착각을 유도한다.1) 따라서 매체 이용자들은 필요한 정보와 광고를 구별할 수 있는 비판적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다.2)

◆오답 풀이

①
⇒1~2) 둘 다 없음!

*우리는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면서 수많은 광고에 노출된다. 이러한 광고는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매체 발달에 따라 매체별 광고 기법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체 이용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기존 광고 기법에 대한 이용자들의 태도) [1문단]

*매체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하게 하여 회피하게 한다.→(기존 광고 기법과 관련) 따라서 기업은 매체 이용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며 기업 윤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매체 생산자의 비판적 인식과 관련)

②
⇒1)이 없음!

*검색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기존 인터넷 광고와 달리 특정 대상에게만 노출되지만, [2문단]

*광고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매체 이용자에게 거부감을 준다.→(기존 광고 기법과 관련) 따라서 매체 이용자들은 주체적으로 광고를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다.2)

③
⇒1)이 없음!

*이에 대응하여 매체 이용자들이 거부감 없이 광고를 수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광고 기법이 등장하고 있다. [1문단]

*기존 광고에 비해 매체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낮은 편이어서 부작용이 적다.→(새 광고 기법의 장점) 따라서 매체 이용자들은 기존 광고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매체의 정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2)

④
⇒1~2) 둘 다 없음!

검색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기존 인터넷 광고와 달리 특정 대상에게만 노출되지만, 검색 결과와 비슷한 형태로 제시되므로 이용자들에게 마치 유용한 정보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2문단]

*검색 대상과 제품이 달라 매체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 구매를 하도록 유도한다.→(검색 결과와 비슷하게 제시된다는 초고의 내용과는 반대)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광고들을 강력히 규제하여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정부 규제의 필요성)

※9~10, <학생의 초고>

9. <작문>

#연상 #지시어와 거리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9%	3%	1%	2%	4%	89%

◆정답 ⑤

*생각해 보면 이 '푸른 잔디'→(관찰 중)는 바삭 마른 갈색 잔디가 되었다가 추운 겨울을 견디며 다시 푸른 잔디로 살아나는 것이었다. [끝문단]

⇒글쓴이가 관찰 중인 잔디는 <바삭 마른 갈색 잔디>가 아니라 <푸른 잔디>이다. 그래서 바삭 마른 갈색 잔디를 관찰하며~기대감을 느낀다는 선지 ⑤는 연상으로 적절하지 않다.

☞<푸른 잔디>를 수식하는 대명사 '이'는 대상이 화자에게 가까이 있음을 나타내므로 현재 <푸른 잔디>를 관찰하는 것이다.

※지시어와 거리에 대해 알아보자!

- ㄱ.<이>: 화자에게 가까운 것
- ㄴ.<그>: 청자에게 가까운 것
- ㄷ.<저>: 화자, 청자에게 먼 것

♣신속한 fact 판단이 관건!

☞정답 선지 ⑤는 긴 문장이지만 앞 부분의 객관적 사실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굳이 뒤 부분을 볼 필요가 없다.

⑤ 바삭 마른 갈색 잔디를 관찰하며 →(잘못된 fact!) 바삭 마른 잔디가 푸른 잔디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다. ☞(볼 필요 없이 신속히 정답으로 판단)

★수능은 단 1초라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이 없어야 시간이 부족해 문제를 찍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벤치에 앉아 잔디밭을 찬찬히 관찰해 보니 1)잔디밭 위로 난 길이 눈에 들어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디를 밟고 다니며 저 길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니 2)뽳혀 사라진 잔디가 불쌍해졌다. [2문단]

⇒잔디가 뽳혀 난 길을 관찰1)하며 뽳혀 사라진 잔디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2)

◆헛갈림 주의!

(아래의 단어들은 비슷해 보이지만 공통된 의미는 없다)

*연민: 불쌍하고 가련히 여김

*미안함: 남에게 대하여 마음이 편치 못하고 부끄러움

→(보통 후회나 반성을 동반)

*애달픔: 마음이 안타깝거나 쓰라리다.

★수능 국어의 근본적인 실력은 독해력에 바탕이 되는 어휘력이다. 위와 같이 자주 출제되고 혼동의 우려가 있는 어휘는 암기하고 넘어가자!

②

*그런 생각을 하다 1)(잔디가 뽳혀 난) 그 길을 다시 보니 연두색의 잔디 싹이 자라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뽳혀 잔디가 사라진 그 길 위에 잔디는 다시 싹을 틔운 것이었다. 나는 그 2)잔디 싹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느꼈다. [끝문단]

⇒잔디가 뽳혀 난 길 위에 잔디 싹이 돋은 것을 관찰1)하며 잔디가 지닌 생명력을 떠올렸다.2)

③

*그러나 1)잔디밭에 함께 모여 춤추며 자라는 잔디를 보니 잔디가 서로를 의지하며 2)혹독한 시련을 함께 견뎌 왔다는 생각도 들어 대견함을 느꼈다. [끝문단]

⇒잔디밭에 함께 모여 자라는 잔디를 관찰1)하며 잔디가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견뎌 온 것에 대견함을 느꼈다.2)

④

*벤치에 앉아 잔디밭을 찬찬히 관찰해 보니 1)잔디밭 위로 난 길이 눈에 들어왔다.~그 길을 계속 보다 보니 2)사람들에게 뽳혀 사라진 잔디의 처지가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한때 꿈이 흔들렸던 나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라진 잔디가 더 안쓰럽기도 했다. [2문단]

⇒잔디밭 위로 난 길을 관찰1)하며 사람들에게 뽳혀 사라진 잔디와 한때 꿈이 흔들렸던 자신의 처지가 비슷함을 떠올렸다.2)

10. <작문>

#고쳐 쓰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6%	1%	1%	96%	1%	1%

◆정답 ㉔

*길 위에 다시 자라난 저 연두색 잔디 싹도 생명력을 뽳내며 ㉔푸르고 무성한 잔디로 자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술어 <푸르다>와 <무성하다>는 생명력을 나타내는 동일한 맥락이므로 ‘-고’를 사용한 <푸르고>로 그냥 두는 것이 적절하다.

☞‘-지만’은 앞 뒤 서술어를 반대의 맥락으로 연결해 주는 어미이다.

※<어간과 어미>에 대해 알아보자.

:용언(동사, 형용사) 활용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 한다.

*(<먹고, 먹으니, 먹자...>: ‘먹→(어간) / ‘고, ‘으니’, ‘자 →(어미)

※어간과 어근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ㄱ.어간: 용언의 활용형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변하는 부분인 ‘어미’와 결합됨)

ㄴ.어근: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을 가리킴.

☞모든 어간은 어근으로 볼 수 있으나 모든 어근이 어간에 해당하지는 않다.

*먹+다, 먹+고, 먹+으니...

→(‘먹-’은 어간, ‘-다, ‘-고, ‘-으니’는 어미)

☞(‘먹-’은 어근으로도 볼 수 있음)

*덜+개, 어른+스럽다...→(‘덜, ‘어른’은 어근)

◆오답 풀이

①

*선생님께서서는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㉔어려움에 겪는다고 하시며~

⇒<겪는다>는 <목적어>를 꼭 필요로 하는 서술어(→타동사)이므로 <어려움>이 목적격 조사 ‘-을’ 만나 ㉔<어려움을>로 고쳐야 한다.

♣우리 국어는 붙였다 떼는 첨가어적 성격이 매우 발달해 있어 품사 중 <조사>와 관련된 문제는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1순위임을 알고 철저히 공부해 두어야 한다.

※**조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 ㄱ. **격조사**: 다양한 격을 형성. (이/가, 을/를, 예/에서, 이다~)
- ㄴ. **접속조사**: 낱말을 이어줌. (와/과, 이랑, 하고~)
- ㄷ. **보조사**: 낱말의 뜻을 더해 줌. (도, 만, 조차~)

※<동사>의 다양한 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 ㄱ. 목적어 유무에 따라: 타동사-자동사
- ㄴ. 활용의 규칙성 여부에 따라: 규칙 동사-불규칙 동사
- ㄷ. 의미의 중심성 여부에 따라: 본동사-보조동사

②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푸른 잔디밭이 눈에 **㉠**떠었다.

⇒어휘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떠었다’로 고쳐야 한다.

- *띠다: 띠나 끈 따위를 두르다.
- *띄다: 눈에 보이다.

④

*길 위에 다시 자라난 저 연두색 잔디 **㉡**생명력을 뽑내며 푸르고 무성한 잔디로 자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잔디밭에 함께 모여 촘촘히 자라는 잔디를 보니 잔디가 서로를 의지하며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견뎌 왔다는 **㉤**생각도 들어 대견함을 느꼈다.

⇒‘잔디의 강인함’으로 1~2)는 동일한 맥락이므로 **㉢**<또한>으로 고쳐야 한다. (‘그러나’는 서로 반대의 맥락으로 연결함)

↳생각도3)에서 추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 ‘도’의 사용으로 **㉢**<그러나>를 <또한>으로 고쳐야 함이 더욱 확실하다.

⑤

*잔디를 보면서 나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꼭 **㉥**이루리라 다짐했다.

⇒<이루다>는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 이므로 ‘꿈을’을 첨가해서 서술어의 자릿수를 채워야한다.

※**서술어**의 자릿수를 암기해두자!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필수 문장 성분의 개수
(→서술어를 제외하고 개수를 판단)

- ㄱ. **1자리 서술어**: 주어+(서술어)
- ㄴ. **2자리 서술어**: 주어+목적어+(서술어), 주어+보어+(서술어)
- ㄷ. **3자리 서술어**: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

- *철수가 가다 →(1자리 서술어)
- *철수가 밥을 먹다, 철수가 학생이 되다. →(2자리 서술어)
- *철수가 영희에게 선물을 주다 →(3자리 서술어)

11. <문법>

#중심적 의미 #주변적 의미 #어휘의 의미 관계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3%	93%	1%	1%	4%	1%

◆정답 ①

-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지니던 것
-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된 것

- *㉠: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 *㉡: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낮다**.

⇒**낮은 곳**에서 <곳>은 ‘공간’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지닌다는 ㉠과 관련되고 **관심도가 낮다**에서 <관심도>는 추상적인 말로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된다는** ㉡과 관련된다.

- ▶구체적: 눈에 보이는 대상물. (공간)
- 추상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오답 풀이

- ②
-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 *힘든 만큼 **기쁨이 큰** 법이다.

⇒<**가능성이 크다** & **기쁨이 큰**>에서 <가능성>과 <기쁨>은 공간과 관련되지 않은,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둘 다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된다는** ㉡과 관련된다.

- ③
- ***두 팔을** 최대한 **넓게** 벌렸다.
- ***도로 폭이 넓어서** 좋다.

⇒<**두 팔을~넓게** & **도로 폭이 넓어서**>에서 <두 팔>과 <도로 폭>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둘 다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지닌다는 ㉠과 관련된다.

- ④
- *내 **좁은 소견**을 말씀드렸다.
- ***마음이 좁아서**는 곤란하다.

⇒<**좁은 소견** & **마음이 좁아서**>에서 <소견>과 <마음>은 공간과 관련되지 않은,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둘 다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된다는** ㉡과 관련된다.

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우리 학교는 **운동장이 작다**.

⇒ **작은 힘**에서 <힘>은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된다는 ㉠과 관련되고 **운동장이 작다**에서 <운동장>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지닌다는 ㉠과 관련된다.

※<어휘의 의미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유의어**: 서로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 (책방-서점, 아이-어린이)
- ㄴ. **동음어**: 서로 소리는 같지만 의미는 전혀 다름. (내리는 눈-사람의 눈)
- ㄷ. **반의어**: 서로 의미가 반대를 이룸. (남자-여자, 좋다-싫다)
- ㄹ. **다의어**: 중심의미와 주변적 의미를 지님(신체의 일부/노동력)

※<반의 관계>의 성립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 어휘의 모든 자질이 달라야만 반의어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다른 모든 자질은 같고 하나만 달라야 서로 반의어가 된다.

- 1) 총각: 동물+사람+미혼+남자+ 2) 처녀: 동물+사람+미혼+여자+
- 3) 남편: 동물+사람+기혼+남자+ 4) 아내: 동물+사람+기혼+여자+

그래서 총각↔처녀 / 남편↔아내만이 반의 관계를 이룬다.

12. <문법>

#음운 변동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2%	9%	10%	2%	8%	72%

◆정답 ㉠

(가): 1)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나): 또한 2)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윤고[읍포]**

⇒ 자음군 'ㄹ'중 'ㄹ'이 탈락2)하고 남은 종성인 'ㄹ'은 거센소리로 파열음의 예사소리인 'ㄹ'으로 교체1)됨.

☞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음.

◆오답 풀이

①

***꽃힌[꼬친]**

⇒ 종성 'ㄷ'은 파찰음이지만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ㅎ'과 만나 'ㅌ'으로 축약되어 있는 것이다.

☞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없음.

②

***뫼이[목씨]**

⇒ 자음군 'ㄷ'중 'ㄷ'은 탈락된 것이 아니라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된소리가 되어 이동한 것이다.

☞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없음.

③

***비웃[비운]**

⇒ 종성 'ㄷ'은 마찰음으로 파열음의 예사소리인 'ㄷ'으로 교체.

☞ (가)에만 해당하는 음운 변동.

④

***얹고[안교]**

⇒ 자음군 'ㄷ'중 'ㅎ'이 탈락한 것이 아니라 다음 음절의 'ㄱ'과 만나 'ㄱ'으로 축약된 것이다.

☞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없다.

※<자음 체계>는 꼭 암기해야한다.

조음위치 조음방법		입술	혀끝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파열음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ㅋ, ㆁ
울림소리	마찰음		ㅅ, ㅆ			ㅎ
	파찰음			ㅈ, ㅊ, ㅊ		
울림소리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동화와 축약을 구별해 보자!

ㄱ. **동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덮는 것**.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ㅣ'모음역행동화...)

ㄴ. **축약**: 한 음운이 다른 음운을 만나 두 개의 성질을 공유한 **새 음운 탄생**.

☞ 자음 축약에는 반드시 'ㅎ'이 필요하다.
(일치→[일치], 말형→[마형])

※ 꼭 암기해야 할 문법 기본 지식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받침 발음은 ㄱ, ㄷ, ㅂ, ㄴ, ㄹ, ㅁ, ㅇ 중 하나로 됨

i. (ㄱ, ㅋ → ㄱ / ㄷ, ㅌ → ㄷ / ㅂ, ㅍ → ㅂ

특히 ㅅ, ㅆ, ㅈ, ㅊ, ㅊ, ㅊ → ㄷ)

ii. (겹자음의 탈락도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관련됨. 값 → [갑])

2) <된소리되기>: 여러 환경에 의해 된소리 아닌 것이 된소리로 됨

특히 'ㄱ(ㄱ, ㅋ, ㆁ, ㄹ), ㄷ(ㄷ, ㅌ, ㅈ, ㅊ, ㅊ, ㅊ), ㅂ(ㅂ, ㅍ, ㅃ,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

-국밥[국뽕] 깎다[깎따]

3) <거센소리되기>: ㅎ과 만나는 예사소리를 거센소리로 되게 함.

ㄱ+ㅎ=ㅋ, ㄷ+ㅎ=ㅌ, ㅂ+ㅎ=ㅍ, ㅅ+ㅎ=ㅆ -국화 [구화], 말형[마형]

※ 예사소리: ㄱ, ㄷ, ㅂ, ㅅ

된소리 (경음): ㄱ, ㄷ, ㅂ, ㅅ

거센소리 (격음): ㅋ, ㅌ, ㅍ, ㅆ

“평가원 이의 신청 & 커뮤니티 후기”

Q. 국어 영역 12번(홀수형)은 표준 발음법 제4장 제12항 [붙임1] '꽃히다[꼬치다]'를 근거로 ⑤번을 정답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만 '꽃히다'의 음운 변동에 대해 국립국어원(문고 답하기-온라인 가나다)의 답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꽃히다'가 [꼬치다]로 발음되는 음운 현상과 관련하여 '꽃히다'→[꽃히다]→[꼬티다]→[꼬치다]로 봐야 하는지 (이 경우라면 ㅈ→ㄷ / ㄷ+ㅎ→ㄷ / ㅌ→ㄷ - 따라서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한 교체' → '축약' → '구개음화') 아니면 중간 과정 없이 [꼬치다]로 바로 가는 '축약' 현상만 나타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꽃히다'의 발음은, 음운 구조상, [꽃히다]→[꼬티다]→[꼬치다]의 과정을 거치며, 이에 대해서 '표준 발음법' 제17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꽃히다'와 같은 발음 환경인 '부딪히다'의 경우에서도 국립국어원의 답변은 일관되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질문: '부딪히다'의 음운 현상

*답변: 받침은 자음 앞에서 대표음으로 소리 납니다. 그러므로 '부딪히다'는

[부딪히다→부디티다→부디치다]의 과정을 거쳐 발음되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 영역 12번은 ①번과 ⑤번, 복수 정답 처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2017 수능 국어에서 가장 논란이 된 문제인데, 논란이 생기자 국립국어원의 답변이 바뀌었습니다. '꽃히다'의 발음을 중간 과정 없이 [꼬치다]로 바로 가는 '축약' 현상만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선지 ①이 복수 정답이 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다. (*이를 두고 국립국어원은 평가원의 논란을 덜기 위한 방향으로 답변을 무책임하게 바꾸어버렸다고 욕을 많이 먹었다!)

*12번 국립국어원에서 잘못 설명했다고 하네요 ㅋㅋㅋ

/Jak9FufSXGv6qe

아마 팍x쌈도 국립국어원 참조해서서 인강 그렇게 찍으신 것 같은데 뭐 할말이 없네요 ㅋㅋ 수시로 여차여차 비벼볼 생각이어서 큰 상관은 없겠지만 국립국어원 문법 답변도 못 믿으면.. 뭐 어찌자는 건지...ㅎ

국립국어원에서 이제껏 1번도 정답된다는 답변을 수능전 한 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했는데 문제제기가 되니까 잘못설명했다? 어느 교과서에도 1번이 답이 안된다는 근거가 없어요.

/좋지아니한가

애초에 정정될 확률이 거의 제로였.../똥팡이

13. <문법> ☆오답률 1위☆ (수능 9개년 중 3위)

#학습 활동 #타동사_자동사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28%	5%	3%	28%	8%	57%

◆정답 ⑤

(가)

1)[중세 국어] 큰 몹수물 여러 →(목적어 동반○: 타동사)

2)[현대 국어] 큰 마음을 열어 →(목적어 동반○: 타동사)

3)[중세 국어] 自然히 몹수미 여러 →(목적어 동반x: 자동사)

4)[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 →(목적어 동반x: 자동사)

(나)

5)[중세 국어] 번개 구르를 흐터 →(목적어 동반○: 타동사)

6)[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흘어 →(목적어 동반○: 타동사)

7)[중세 국어] 散心은 흐트 몹수미라 →(목적어 동반x: 자동사)

8)[현대 국어] 산심은 흘어진 마음이다. →(목적어 동반x: 자동사)

▶ 목적어의 여부로 (타동사? vs 자동사?)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

⇒ 중세 국어 <열다>, <흘다>는 타동사(1,5) 및 자동사(3,7)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흘다>는 타동사(2,6)로만 쓰인다.

◆<열다 & 열리다>, <홀다 & 홀어지다>는 모두 다른 단어이다.

↳<열다>의 피동형인 <열리다>와 <홀다>의 피동형인 <홀어지다>는 자동사로 쓰인다.4,8)

*<열다>의 활용형: 열어, 열고, 여니...→(어간: '열')

*<열리다>의 활용형: 열리니, 열리고, 열리어(열려)...
→(어간: '열리')

↳<열리다>를 <열다>의 활용형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서로 어간 자체가 다르다.

*<홀다>의 활용형: 홀어, 홀어서...→(어간: '홀')

*<홀어지다>의 활용형: 홀어진, 홀어지니...→(어간: '홀어지')

↳<홀어지다>를 <홀다>의 활용형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서로 어간 자체가 다르다.

♣중세 국어의 <표음주의>

↳중세 국어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여러’, ‘흐터’, 무수물(마을) ‘구르물’...)

★중세 국어라고 무조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중세 국어에 대응되는 현대 국어의 모습에 정답의 단서가 모두 있기 때문이다.

◆오답 풀이

①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1,5)뿐만 아니라 자동사 3,7)로도 쓰였다.

②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3,7)뿐만 아니라 타동사 1,5)로도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2,6)로만 쓰인다.

④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2,6)로만 쓰인다.

⑤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2,6)로만 쓰인다.

※<동사>의 다양한 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 ㄱ. 목적어 유무에 따라: 타동사-자동사
- ㄴ. 활용의 규칙성 여부에 따라: 규칙 동사-불규칙 동사
- ㄷ. 의미의 중심성 여부에 따라: 본동사-보조동사

※<어간과 어미>에 대해 알아보자.

:용언(동사, 형용사) 활용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 한다.

*(<먹고, 먹으니, 먹자...>: ‘먹→(어간) / ‘고, ‘으니’, ‘자 →(어미)

※어간과 어근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ㄱ.어간: 용언의 활용형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변하는 부분인‘어미’와 결합됨)

ㄴ.어근: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을 가리킴.

↳모든 어간은 어근으로 볼 수 있으나 모든 어근이 어간에 해당하지는 않다.

*먹+다, 먹+고, 먹+으니...
→(‘먹-’은 어간,‘-다,‘-고,‘-으니’는 어미)
↳(‘먹-’은 어근으로도 볼 수 있음)

*덧+개, 어른+스럽다...→(‘덧, ‘어른’은 어근)

※14~15, <접미사의 특징>

14. <문법>

#접미사 #이해 #어간_어미 #어간_어근 #품사의 종류 #문장 성분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1%	14%	8%	71%	4%	3%

◆정답 ③

*둘째로, 1)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명사 ‘떡이’나 ‘넓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이때 ‘떡이’와 ‘넓이’의 ‘떡-’과 ‘넓-’은 2)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2문단]

<보기>

㉠ 마을 앞 공터를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에서 <놀이>는 동사(놀다)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품사가 <명사>로 바뀌었으므로1) ‘놀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2)

↳‘-이’는 명사 파생 접미사에 해당한다.

※서술어로 사용되는 품사

:동사, 형용사, 체언+서술격 조사

※서술격 조사 <이다>의 특이점!

↳<이다>는 용언(동사 혹은 형용사)처럼 보이나 서술격 조사임에 유의하자. 결국 조사이기 때문에 홀로 쓰이지 못하고 앞말에 붙어서 사용된다. 그러나 조사이지만 용언처럼 활용될 수 있다는 특이점이 있다.

*이다, 이고, 이니, 이어서...

(이)→ 어간 / (-다, -고, -니, -어서) →어미

◆오답 풀이

①
※지문을 통하지 않고도 충분히 적절하지 않음을 판단할 수 있는 선지.

<보기>

㉠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 놓았다.

▶어간을 따지기 위해서는 해당 서술어를 원형(‘-다’가 붙은 형태)으로 돌려놓아 보자.

*<비워>: 비우다 →비우(어간)+ 어(어미)
↳<비우>는 활용시 변하지 않는 어간에 해당.

*<빈다>: 빈다 →비(어간)+ ㄴ(현재시제 어미)+ 다

⇒㉠에서 ‘비워’의 어간은 <비우>로 ‘시간이 빈다.’에서 ‘빈다’의 어간인 <비>와 같지 않다.

※어간과 어미에 대해 알아보자.

- 1) 어간: 용언(동사, 형용사)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
2) 어미: 용언(동사, 형용사) 활용 시 변하는 부분.

*먹고, 먹어서, 먹으니(먹’: ‘어간’ /-고, -어서, -으니: ‘어미’)

②

<보기>

㉢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명사가 아니라, 뒤의 말인 <나는>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이’는 부사 파생 접미사에 해당한다.

※‘-이’: 명사 파생 접미사 vs 부사 파생 접미사

*높이(부사) 날다.
:높이가 ‘서술어’를 수식 →(‘-이’는 부사 파생 접미사)

*높이(명사)를 재자.
:높이가 ‘조사’와 결합됨 →(‘-이’는 명사 파생 접미사)

④

*한편, 1)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2)예를 들면, 접미사 ‘-히-’는 ‘읽다’의 어근 ‘읽-’에 붙어 ‘읽히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한다. 어근 ‘살-’에는 접미사 ‘-리-’가 붙어 ‘살리다’가 형성된다. [끝문단]

<보기>

㉣ 멀리서 찾아온 손님 위해 차를 끓였다.

※먼저 간단히 풀어보자.

⇒지문 1)에 의해, 하나의 접미사인 ‘-이-’가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는 선지 ㉣는 적절하지 않다. (☆실제 시험 상황이라면 여기서 더 따져보지 않고 바로 다음 선지의 검토로 넘어가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학습을 위해 구체적으로 풀어보자.

<끓였다>: 끓(어간)+ 이(사동 접미사)+ 었(과거시제 어미)+ 다 (‘끓’은 어간이자 어근이기도 함)

⇒지문 2)처럼 ‘읽다’, ‘살다’에 접미사 ‘-이-’가 결합될 수 없다. (*읽이다×, 살이다×)

※어간과 어근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 ㄱ.어간: 용언의 활용형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변하는 부분인‘어미’와 결합됨)
ㄴ.어근: 단어를 분석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이 되는 부분을 가리킴.

↳모든 어간은 어근으로 볼 수 있으나 모든 어근이 어간에 해당하지는 않다.

*먹+다, 먹+고, 먹+으니...
→(‘먹-’은 어간,‘-다,‘-고,‘-으니’는 어미)
↳(‘먹-’은 어근으로도 볼 수 있음)

*덮+개, 어른+스럽다...→(‘덮,‘어른’은 어근)

⑤

<보기>

㉤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오시기>: 오(동사의 어간)+ 시(높임 어미)+ 기(명사형 어미)

⇒㉤에서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인 ‘시’가 끼여든 것은 맞지만 <명사>가 아니라, <동사>에 해당한다.

↳명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떤 말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여드는 것의 여부와는 상관없다. 그리고 명사형 어미인 ‘기’가 붙는다고 해서 품사가 명사처럼 보이는 것이지 개별적인 본래의 품사는 변하지 않는다. 본래의 품사를 변화시키기도 하는 것은 일부 접사일 뿐이지 어미는 해당되지 않는다.

※<품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1)명사: 물건이나 장소, 사건, 추상적 개념 등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자전거, 식당, 사랑 등)

- 2)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 그녀, 이것, 저것 등)
- 3)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하나, 첫째 등)
- 4)조사: 자립형태소나 조사, 어미 등의 뒤에 붙어서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뜻을 더해 주는 말
(우리는, 집에서, 선생님이 등)
- 5)동사: 동작을 나타내는 말 (먹다, 자다, 공부하다 등)
- 6)형용사: 사물의 모습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말
(예쁘다, 동글다, 빨갈다 등)
- 7)관형사: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 앞에서 그 체언을 꾸며주는 말 (그 학생, 새 옷 등)
- 8)부사: 용언(동사, 형용사)을 꾸며주는 말
(매우 어렵다, 무척 예쁘다 등)
- 4)감탄사: 화자의 감정 등을 간단히 나타내는 말
(야호, 얼씨구 등)

※문장 성분

- ㄱ.주성분: 1)주어-무엇이, 누가
2)서술어-어찌하다, 어떠하다
3)목적어-'을/를'이 붙은 대상
4)보어-되다/아니다 앞에서 '이/가'가 붙는말

- ㄴ.부속성분: 1)관형어-체언을 꾸밈
2)부사어-용언을 꾸밈

ㄷ.독립성분: 감탄사나 접속부사

※<품사>와 <문장 성분>의 차이점

☞낱말의 개별 성질은 품사이고 낱말의 문장에서의 역할이 문장 성분이다.

- *나는 학교에 갔다
→나(대명사)+는(조사) 학교(명사)+에(조사) 갔다(동사)
- ☞나는(주어)+학교에(부사어)+갔다(서술어)

15. <문법>

#피동_사동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7%	6%	3%	6%	77%	8%

◆정답 ④

-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 ㉡접미사는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정답은 <㉠:사동, ㉡:피동>을 만족해야 한다.

*㉠<숨졌다>:
숨(동사의 어간)+기(사동 접미사)+었(과거시제 어미)+다

*㉡<감졌다>:
감(타동사의 어간)+기(피동 접미사)+었(과거시제 어미)+다
㉠: 바위 뒤에 동생을 숨졌다. →(사동)
㉡: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졌다. →(피동)

◆오답 풀이

- ①
㉠: 형이 동생을 울렸다.→(사동)
㉡: 그는 지구본을 돌렸다.→(사동)

*㉢<울렸다>:
울(동사의 어간)+리(사동 접미사)+었(과거시제 어미)+다

*㉣<돌렸다>:
돌(자동사의 어간)+리(사동 접미사)+었(과거시제 어미)+다

- ②
㉠: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피동)
㉡: 우리는 용돈을 납졌다.→(사동)

*㉢<놓인다>:
놓(타동사의 어간)+이(피동 접미사)+ㄴ(현재시제 어미)+다

*㉣<납졌다>:
납(자동사의 어간)+기(사동 접미사)+었(과거시제 어미)+다

- ③
㉠: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피동)
㉡: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피동)

*㉢<눌렸다>:
누르(타동사의 어간)+리(피동 접미사)+었(과거시제 어미)+다

*㉣<찢겼다>:
찢(타동사의 어간)+기(피동 접미사)+었(과거시제 어미)+다

- ⑤
㉠: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사동)
㉡: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사동)

*㉢<날렸다>:
날(동사의 어간)+리(사동 접미사)+었(과거시제 어미)+다

*㉣<맡겼다>:
맡(동사의 어간)+기(사동 접미사)+었(과거시제 어미)+다

※<능동, 주동, 피동, 사동>에 대해 알아보기

- 0) 능동적=주동적=스스로 움직임!
- 1)피동: 주체가 일을 당함 (문이 닫힌다)
- 2)사동: 주체가 일을 시킴 (철수가 문을 닫게 한다.)

▶ 이중피동은 무조건 불가하지만 이중사동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 1) 그는 그녀를 울렸다.(○) →사동표현: [울+리(사동)+었+다]
- 2) 그는 그녀를 울게 하였다.(○)
→사동표현: [울+게 하(사동)+었+다]
- 3) 그는 그녀를 울리게 하였다.(X) →불필요한 이중사동
- 4) 그는 그녀를 재우다.(○)
→이중사동 허용: [자+이(사동)+우(사동)+다]
- 5) 그는 그녀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게 하다.
→이중사동 허용: [먹+이(사동)+게 하(사동)+다]

☞ 3)이 불필요한 이중사동인 이유는 1)과 2)와 같이 사동표현 하나만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20

〈논리실증주의자, 포퍼 & 콰인의 지식론〉

1)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지식을 경험과 무관한 것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

2)*콰인: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되기 때문에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음.
***총체주의:**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됨.

3)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경험과 무관한 분석 명제와, 경험을 통한 종합 명제를 구분.
→콰인은 필연성의 순환론으로 이 구분을 부정.

4)콰인의 주변부 지식: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
→중심부와 주변부 지식을 동일&수정의 대상으로 봄.

5)총체주의의 문제점: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가 될 수 있음.

16. <인문>

#답변 질문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2%	9%	72%	10%	6%	3%

◆정답 ②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1)<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1문단]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2)<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2문단]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와 ㉡<콰인> 둘 다 <경험을 통해 가설을 시험한다1~2)고 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라는 선지 ②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1)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개별적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1문단]

*그리하여 ㉡<콰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2)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문단]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과학적 지식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1)하기 때문에 <개별적 누적>을 긍정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라는 ①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콰인>은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2)하기 때문에 <개별적 누적>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라는 ①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지문-선지 간의 변형 형태를 살펴보면,

(지문: 하나씩 지식으로 추가=개별적 지식의 누적)

=(선지①: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

③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처럼 1)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1문단]

*이로부터 ㉡<콰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2)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2문단]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지식이 '경험'과 무관한 것1)을 포함하기 때문에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라는 ㉢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수 있다.

※㉡<콰인>은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2)하기 때문에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라는 ㉢의 질문에 '아니오'라고만 답변할 수 있다.

④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은 1)<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1문단]

*하지만 ㉡<콰인>은 2)<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2문단]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예측>을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라는 ㉣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것이다.

※㉡<콰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2)고 보기 때문에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라는 ㉣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할 것이다.

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1)<수학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2)이(수학적-과학적 지식)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3문단]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경험과의 관련성에 따라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을 다른 종류로 구분1)하기 때문에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라는 ㉤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것이다.

※㉡<콰인>은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의 구분을 부정하기2) 때문에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라는 ㉤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이다.

17. <인문>

#이해 #특성 바뀌치기

◆정답 ㉣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7%	16%	5%	7%	67%	6%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그런데 후자가 1)<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원인: '동의적 표현' / 결과: '분석 명제')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2)<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3)<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3문단]

⇒<콰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1)하고, 다시 이(동의적 표현)는 <필연성 개념>에 의존2),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3)한다고 본다.

※지문 2~3)은 '의존'이라는 말이 직접 나타나 있어 쉽게 적절함을 판단할 수 있지만 1)은 '의존'이 직접 나타나 있지 않아 조금은 고민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동의적 표현>→'전자'로 환원→<분석 명제>

: <분석 명제>라고 볼 수 있는 근본 원인은 <동의적 표현>에 있기 때문에 <분석 명제>는 <동의적 표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동의적 표현'이 없다면 '분석 명제'도 존재할 수 없음)그래서 <분석 명제>가 <동의적 표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의존: 다른 것에 의지하여 존재함)

*A(결과)+B(원인) → A는 B를 통해서! → A는 B에 의존!

◆오답 풀이

①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1)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예측이 맞을 경우) 2)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1문단]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맞을 경우1)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2)된다.

②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1)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2)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3문단]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 아니라 “총각은 총각이다.”라고 환원 가능1)하게 한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2)이다.

③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1)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2)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3문단]

⇒<경험과의 관련성 여부>로 지식(분석 명제&종합 명제)을 다르게 구분한 이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1)이므로 <관찰과 실험의 의존성 여부>로 지식을 다르게 보고 있는 이는 <콰인>이 아니라,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이다.

⇒<콰인>은 지식(분석 명제&종합 명제)의 구분(→다름)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2)

▶지문에 A, B 두 대상과 그 특징이 나타나면 이 둘의 특징을 바꿔치기한 부적절한 선지는 반드시 나온다.

⑤

*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1)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2)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3문단]

⇒<콰인>은 <동어 반복 명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대상의 동의적 표현1)이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는 것2)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미가 다르고 서로 대체하면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것을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보는 선지 ⑤는 적절하지 않다.

♣누구의 말이나 생각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3문단은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콰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구분해 주어야 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콰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여기서부터 3문단 끝까지 다시 ‘콰인’의 판단에 해당)그런데 후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3문단]

18. <인문> ☆오답률 7위☆

#입장 #평가 #3점 #유용한 팁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1%	5%	5%	14%	14%	61%

◆정답 ⑤

- ④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
- ⑥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
- ⑦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

*그런데 1)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2)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4문단]

*<총체주의>는 3)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4)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5)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끝문단]

*<총체주의>의 입장: ‘반박’이 있더라도3) ‘가설’ 수용 가능!5)

*<총체주의>의 입장을 선지 ⑤와 관련지어 보면,

⇒⑥<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1) 즉 ①<가설>에 대한 결정적 <반박>이 있더라도3) ③<전체 지식>을 수정하는 방법2,4)으로 ①<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5)고 할 것이다.

◆선지와 지문의 대응성 정리,

- *⑥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결정적 반박1)
- *③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반박을 피하는 방법2,4)
- *①를 받아들일 수 있다. →가설 수용5)

★비문학 실력의 근본 원인은 신속하고 정확한 독해력이지만 짧은 수험 기간 동안에 이를 쌓아 올리기에 많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문-선지의 대응성 양상을 눈에 익혀두는 것이 부족한 독해력을 메워줄 유용한 방법이다.

◆오답 풀이

①

-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
- Ⓑ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2)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문단]

⇒ Ⓑ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1)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2) 그래서 Ⓐ <가설>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한다.

②

-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
- Ⓑ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
- ⓒ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

*그런데 1)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2)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4문단]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3)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나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끝문단]

⇒ Ⓑ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1) ⓒ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 2)는 실용적 필요 3)에 따라 달라진다.

③

- Ⓐ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
- Ⓑ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
- ⓒ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

*이렇게 1)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2문단]

⇒ Ⓑ <예측>은 Ⓐ <가설>과 ⓒ <전체 지식>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1)된다.

④

- Ⓑ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
- ⓒ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

*그런데 1)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2)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4문단]

⇒ Ⓑ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2) Ⓑ <예측>은 ⓒ <전체 지식>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1)한 것이다.

◆지문-선지의 대응 양상

- * <주변부 지식> & <경험>의 충돌
→ <전체 지식의 주변부> & <경험>의 충돌

★유용한 팁★

◆끝문단이 중요하다!

☞ 끝문단은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 요약, 강조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인물이 행한 가치 있는 일이 요약된) 견해도 드러나기 마련이다. 비문학에서 주제와 긴밀한 것은 물론 인물의 업적 및 견해, 글쓴이의 생각, 관점, 강조 사항, 당부, 가치관, 입장 등과 관련된 것을 물으면 이번 문제처럼 정답의 핵심 근거는 지문의 끝문단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다음 문제들은 정답의 근거가 모두 끝문단에 있다!

- *윗글의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5 수능 24번)
- *~키르히호프의 업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2014 수능 16번)
- *~포퍼의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3 수능 22번)
-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가장 적절한 것은? (2011 9월 평가원 20번)
- *글쓴이의 생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008 9월 평가원 44번)
-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05 9월 평가원 45번)
- *글쓴이가 다른 핵심 문제로 알맞은 것은? (2005 수능 24번)
- *윗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0 수능 45번)

19. <인문> ☆오답률 4위☆ (수능 9개년 중 48위)

#공통 선지의 법칙 #비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7%	17%	9%	9%	9%	57%

◆정답 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1)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2)과인(→'총체주의'의 입장)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3)<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4문단]

⇒<총체주의>의 입장인 <과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1)고 하면서 서로 같은 종류라고 말한다.2) 그렇다면 같은 종류이니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든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든 전체 지식의 변화도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3)고 말한다. 이는 두 지식 간의 차이가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에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는 선지 ⑤의 비판은 적절하다.

※비난 vs 비판에 대해 알아보자!

ㄱ. 비난: 남의 잘못을 말함. ☞(부정적)

ㄴ. 비판: 남의 잘못을 말함.+잘못의 원인 혹은 대안을 말함

☞(긍정적)

◆오답 풀이

①

*하지만 1)과인(총체주의)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2문단]

⇒<총체주의>는 가설만 가지고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1)고 보기 때문에 ①에 언급된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 자체는 <총체주의>의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①은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이 성립될 수 없다.

☞<총체주의>를 비판하려면 일단 <총체주의>가 있고 이를 부정하거나 반대의 맥락으로 말해야 하는데 ①은 <총체주의> 자체를 잘못 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②

*과인(총체주의)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1)<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4문단]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1)라는 것은 <총체주의>의 입장에 해당한다.

③

*1)<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끝문단]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지식>이 아니라 <특정 가설>이다.1)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는 것으로 <총체주의>를 잘못 이해한 ③은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총체주의>를 비판하려면 일단 <총체주의>가 있고 이를 부정하거나 반대의 맥락으로 비판해야 하는데 ③은 <총체주의> 자체를 잘못 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④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그래서 1)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중심부' 혹은 '주변부의 지식을 선택적 수정) 그리하여 2)과인(총체주의)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문단]

⇒<총체주의>는 <중심부 지식> 혹은 <주변부 지식>을 선택해서 수정1)하거나 모두 수정2)해야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꼭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한다는 ④는 <총체주의>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래서 ④는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이 성립될 수 없다.

☞<총체주의>를 비판하려면 일단 <총체주의>가 있고 이를 부정하거나 반대의 맥락으로 말해야 하는데 ④는 <총체주의> 자체를 잘못 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대단히 유용한 팁★

♣공통 선지의 법칙!

☞ 5개의 선지중 하나의 선지가 산술적인 정답의 확률은 20%이지만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최선 긍정 발문형 문제에서 선지의 내용 중 최대 공통점(맑은 꼴)의 한 쌍이 존재하는 경우 그 둘 중 하나의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약 70%이다.

*위 문제의 선지 ④, ⑤는 (중심부 지식, 주변부 지식)이 공통된다.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것은 아니다.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정답★)

그래서 지문과 문제에 상관없이 ④, ⑤중에서 답이 있을 가능성은 약 70%이다.

▶출제자는 정답을 먼저 만들고 이와 유사한 매력 오답을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정답을 닮은 매력 오답이 나올 때가 있다. 수험생은 이를 역이용해 닮은 꼴 선지 쌍의 정답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분명 다르다! 문제를 풀 다 자연스럽게 위와 같은 선지가 보인다면 다른 선지보다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자. 사소한 팁 하나가 문제 풀이 시간을 절약해 1점 더 올릴 수 있는 중요한 보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20. <어휘>

#바뀌 쓰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5%	2%	85%	10%	1%	1%

◆정답 ②

*따라서 콰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㉔도달한다.

*㉔<도달한다>: 목적인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

⇒㉔<도달한다>의 사전적 의미 중에 <다다르다>가 직접 나타나 있어 충분히 ㉔<도달한다>와 <다다르다>는 바뀌 쓸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잇따른다>: 어떤 사건이나 행동 따위가 이어 발생하다.

③

<봉착한다>: 어떤 처지나 상태에 부닥치다.

→(부정적 상황과 관련)

④

<회귀한다>: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거나 돌아가다.

⑤

<기인한다>: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두다.

“평가원 이의신청”

16번 문제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1문단 3-4줄에서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라고 언급되어있고 콰인도 마지막에서 두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식이라는 범주안에 과학적 지식은 당연히 포함되겠조? 그렇게 되면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과학적 지식이 '개별적'이 아닌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 것이고 콰인도 과학적 지식이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므로 1번선지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가 주장한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의 구체적 양상이 [1문단 마지막 문장]에 해당하는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는 것이다. 이는 선지 ①에 다음과 같이 대응된다.

① 과학적 지식(→가설)은 개별적(→하나씩)으로 누적(추가)되는가?

그래서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선지 ①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다. 질문자는 <과학적 방법>이 아니면 <개별적 방법>이라는 극단적 흑백 사고로 선지 ①에 접근해서 <과학적 방법>이 <개별적 방법>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다.

18번 선지 4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④ ⑥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⑥는 ㉔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이때 4문단에서 중심부 지식은 주변부 지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견고하며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⑥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이게 중심부에서 충돌한 것인지, 주변부에서 충돌한 것인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했다는 4번 선지를 틀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 부탁드립니다.

☞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다> 라는 말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대강은 나눌 수 있어도 그 경계점이 뚜렷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대강 나눌 수 있다는 기준이 바로 상대적인 견고함의 유무이다. (상대적으로 견고하면 중심부 지식, 그렇지 않으면 주변부 지식) 이에 따라 중심부에서 혹은 주변부에서의 충돌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게다가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한다는 내용을 직접 서술한 부분이 [4문단]에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선지 ④를 검토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21~26,

(가) <전쟁 문학을 통한 전쟁의 성격 탐색>

(나) <박씨전>

*갈래: 군담 소설, 영웅 소설, 역사 소설
 *성격: 비현실적, 전기적, 허구적
 *주제: 박씨의 영웅적 기상과 재주,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 표출

*전체 줄거리:
 재상 이득춘은 아들 이시백을 박 처사의 딸 박씨와 혼인시키나 아들은 부인의 외모를 보고 돌보지 않는다. 어질고 현명한 박씨는 후원에 피화당을 짓고 살면서 뛰어난 재주로 남편을 장원 급제 시키고, 액운을 벗고 절세미인으로 변하여 화목하게 지낸다. 한편, 세력을 키운 호국이 옹골대 형제로 하여금 조선을 치게 하지만 박씨가 뛰어난 기상과 신이한 도술로 이들을 물리쳐 절충 부인에 봉해지고 남편 이시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린다.

*감상의 길잡이
 ☞ 병자 호란을 배경으로 한 작가, 연대 미상의 군담 소설로, 여성 영웅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여성의 시련 과정을 보여준 소설로 역사적 사실에 바탕하여 허구적으로 재구성한 작품으로 이시백의 아내 박씨는 영웅적 기상과 재주로 호왕과 적장을 농락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한다.

(다)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갈래: 전쟁 소설
 *성격: 비판적, 사실적
 *주제: 전쟁이 지닌 극한 상황과 군대의 기계주의

*감상의 길잡이
 ☞ 6.25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인간의 숨소리가 느껴지는 전장 속의 시장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한국적인 인간 정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전장'은 죽음과 부정을 상징하고, '시장'은 인간적인 삶과 긍정을 표상한다.

21. <소설>

#설명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3%	2%	2%	2%	93%	1%

◆정답 ④

(가)

*전쟁터란 전장과 후방, 1)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이다. 이 혼돈 속에서 사람들은 고통 받으면서도 생의 의지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쟁은 비극성을 띤다. 이처럼, <전쟁의 허구화>를 통해 우리는 전쟁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 [2문단]

(다)

*2) '지영'은 '윤씨'를 안아 일으킨다. 그리고 들춰 엮는다. 그는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음을 옮긴다.

⇒(가)의 <전쟁의 허구화>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1)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다)에서 '윤씨'와 '지영'의 관계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 구도 본 선지 ④는 적절하지 않다.

☆(다)의 내용을 보지 않고도 충분히 정답으로 판단 가능!

(실제 시험 상황이라면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다. 최소한의 근거로 시험 시간을 절약해 선지의 정오를 판단하고 아껴둔 시간을 고난도 문제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다)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윤씨'와 '지영'의 대립 구도는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지영'은 '윤씨'를 돕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 *전쟁을 다룬 소설 중에는 실재했던 전쟁을 제재로 한 작품들이 있다. 이런 작품들은 허구를 매개로 1)실재했던 전쟁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가령, 「박씨전」의 후반부는 2)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허구적 인물 박씨가 패전의 고통을 안겼던 실존 인물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 [1문단]

⇒(나)는 실재했던 전쟁1)을 다루면서도 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욕망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2)

☆(나)의 내용을 보지 않고도 충분히 적절함을 판단 가능!

②

(가) *가령, 「박씨전」의 후반부는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허구적 인물 <박씨>가 패전의 고통을 안겼던 실존 인물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1)이들(박씨&용골대) 간의 대립 구도 하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조선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강화하였다. [1문단]

⇒(나)는 박씨 등의 여성 인물과 용골대 등의 가해 세력 간의 대립 구도1)를 통해 전쟁을 조명하고 있다.

☆(나)의 내용을 보지 않고도 충분히 적절함을 판단 가능!

③

(가) *한편, 1)「시장과 전장」은 한국전쟁이 남긴 상흔을 직시하고 이에 좌절하지 않으려던 작가의 의지가, 이념 간의 갈등에 노출되고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을 통해 2)허구화되었다. [1문단]

⇒(다)는 실재했던 전쟁을 다루면서도 그 상흔을 직시1)하려는 의지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2)

☆(다)의 내용을 보지 않고도 충분히 적절함을 판단 가능!

⑤

(가) *가령, 「박씨전」의 후반부는 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허구적 인물 박씨가 패전의 고통을 안겼던 1)실존 인물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 [1문단]

(나) *문득 나무들 사이에서 한 여인이 나와 크게 꾸짖어 왈, “무지한 2)용골대야, 네 아우가 내 손에 죽었거든 너조차 죽기를 재촉하느냐?” [1문단]

(다) *사실은 배급이 아니었다. 밤사이에 3)중공군과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미쳐 날라 가지 못했던 식량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지문중반]

⇒(나)와 (다)는 ‘용골대’나 ‘중공군’과 같은 단어1~3)를 통해 실재했던 전쟁이 환기되도록 했다.

22. <소설>

#1항목 후순위의 법칙 #학습 활동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0%	2%	2%	2%	90%	3%

◆정답 ④

(가) *허구적 인물 1)<박씨>가 패전의 고통을 안겼던 실존 인물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이들 간의 대립 구도 하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2)조선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강화하였다. [1문단]

<학습활동>

*3)<용골대>가 송파장에 결진하고 승전고를 울리며 교만이 자심하여 <승전비>를 세워 거드러거리며, 왕대비와 중궁을 돌려보내고 세자 대군을 잡아 북경으로 가려 하더라.

⇒「임장군전」에서는 용골대의 <승전비> 건립3)을 통한 것은 맞지만, (나)에서는 <박씨>의 용서가 아닌, <용골대>를 물리치는 것1)을 통해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2) 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나)의 내용을 보지 않고도 충분히 정답임을 판단 가능!

◆오답 풀이

①

(가) *가령, 「박씨전」의 후반부는 패전했던 1)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허구적 인물 박씨가 패전의 고통을 안겼던 실존 인물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 [1문단]

(나) *2)<박씨>가 시비 <계화>로 하여금 외쳐 왈, “무지한 오랑캐(용골대)야, 너희 왕 놈이 무식하여 은혜지국(恩惠之國)을 침범하였거니와,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5문단]

⇒(나)에서 <용골대>를 꾸짖는 <계화>와 <박씨>가 등장2)하는 것에는 병자호란 때에 있었으면 좋았을 인물에 대한 백성들의 소망1)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 *이들 간의 대립 구도 하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는 조선 사람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함으로써 1)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강화하였다. [1문단]

<학습활동> *병자년 12월 20일에 상이 2)항서를 닦아 보내시니, 그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

⇒「임장군전」에서 항서를 보낸 것2)에 대해 서술자도 슬픔을 토로하는 것은 패전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연대감1)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 *허구적 인물 박씨가 1)패전의 고통을 안겼던 실존 인물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 [1문단]

<학습활동> *<용골대>가 송과장에 걸진하고 승전고를 울리며 2)교만이 자심하여 승전비를 세워 거드러거리며, 왕대비와 중궁을 돌려보내고 세자 대군을 잡아 북경으로 가려 하더라.

⇒(나)와 「임장군전」에서 모두 <용골대>가 부정적인 모습1~2)으로 그려진 데에는 백성들이 겪었던 패전의 고통1)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의 내용을 보지 않고도 충분히 적절함을 판단 가능!

⑤

(가) *가령, 「박씨전」의 후반부는 1)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허구적 인물 박씨가 패전의 고통을 안겼던 실존 인물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 [1문단]

(나) *그제야 오랑캐 장수들이 황겁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모두 함물할지라. 마지못하여 장수들이 투구를 벗고 창을 버려, 피화당 앞에 나아가 꿇어 애걸하기를, “오늘날 이미 화친을 받았으나 2)<왕대비>는 아니 되서 갈 것이니, 박 부인 덕택에 살려 주옵소서.” [5문단]

<학습활동> *용골대가 송과장에 걸진하고 승전고를 울리며 교만이 자심하여 승전비를 세워 거드러거리며, (이미 볼모에 있는) <왕대비>와 중궁을 돌려보내고 세자 대군을 잡아 북경으로 가려 하더라.

⇒「임장군전」과 달리 (나)에서 박씨의 승전을 통해 <왕대비>가 볼모로 가지 않게 된2) 과정이 형상화된 것은 패전의 상실감을 위로받고자 하는 백성들의 욕망1)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항목 후순위의 법칙

☞문제의 지문 혹은 제시문이 (가), (나), (다) 등의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고 선지에서는 그 항목을 1개 혹은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다. 이때 <항목을 1개만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항목을 2개 이상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보다는 많이 낮은 편이다.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①, ②가 각각 (나) 혹은 「임장군전」 중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를 고려하고 항목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 선지 ③~⑤를 먼저 더욱 집중해서 보는 것은 정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날 수 있는 풀이법이다.

위와 같은 문제만이라도 선지를 꼭 ①에서 ⑤의 순서대로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자.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정답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능 국어의 생명인 문제 풀이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23. <소설>

#설명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4%	5%	7%	2%	2%	84%

◆정답 ⑤

(나)

*용골대가 할 길 없어,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1)장졸만 다 죽였으니, 어찌 분한(憤恨)치 않으리오.” 하고 회군하여 발행할 제, 2)왕대비와 세자 대군이며 장안 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4문단]

⇒용골대가 장졸들의 죽음에 탄식하는 장면1)에서, (왕대비, 세자 대군, 장안 미색)을 데리고 회군하는 것2)이지 죽음의 책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박씨에게 돌리는 것은 아니다.

*발행: 길을 떠남.

◆오답 풀이

①

(가)

*「박씨전」에서는 이 1)비극적 체험을 재구성하여, 전화를 피하기 위한 장소인 피화당(避禍堂)에서 여성 인물과 적군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설정하고 있다. [1문단]

(나)

*용골대가~군사를 호령하여 일시에 불을 놓으니, 그 불이 화약 염초를 범하매 벽력 같은 소리가 나며 2)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충천하여 죽는 자가 무수하더라. [3문단]

*용골대가 할 길 없어,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였으니, 어찌 분한(憤恨)치 않으리오.” 하고 회군하여 발행할 제,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며 3)장안 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4문단]

⇒장안 삼십 리에 불길2)이 충천하고 장안 미색이 끌려가는3) 장면은 조선 백성들의 비극적 체험1)을 드러내고 있다.

*장안 미색: 서울의 아름다운 여인

②

(가)

*1)외적에 휘둘린 무능한 관군 탓에 병자호란 당시 여성은 전쟁의 큰 피해자였다. [1문단]

(나)

*<용골대> 아무리 분한들 어찌하리오. 마음에 탄복하고 2)<조선 도원수> 김자점을 불러 왈, “너희는 이제 내 나라의 신하라. 내 영을 어찌 어기리오.” 자점이 황공하여 왈, “분부대로 거행하오리다.” [2문단]

⇒<용골대>에게 <조선 도원수>가 복종하여 명령을 따르는 장면 2)은 관군의 무능함1)을 허구를 매개로 조명하고 있다.

③

(가)

*가령, 「박씨전」의 후반부는 1)패전했던 병자호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조선 사람들의 욕망에 따라, 2)허구적 인물 박씨가 패전의 고통을 안겼던 실존 인물 용골대를 물리치는 장면을 중심으로 허구화되었다. [1문단]

(나)

*박씨가 또 계화로 하여금 다시 외쳐 왈, “너희가 일양 그리하려거든 3)내 재주를 구경하라.”~그제야 4)오랑캐 장수들이 황겁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모두 함몰할지라. [6문단]

⇒박씨의 재주3)에 오랑캐 장수들이 황겁해 하는 장면4)에서, 패전의 고통1)이 허구적 인물의 활약2)을 통해 위로받고 있다.

④

(나)

*<박씨>가 시비 계화로 하여금 외쳐 왈, “1)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 놈이 무식하여 은혜지국(恩惠之國)을 침범하였거니와,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6문단]

⇒오랑캐군의 침략이 은혜지국에 대한 침범1)이라는 <박씨>의 비난은 용골대를 비롯한 오랑캐군이 불의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불의: 의리, 도의, 정의 따위에 어긋남.

24. <소설>

#감상 #새의 상징성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8%	3%	8%	78%	3%	9%

◆정답 ③

*사실은 배급이 아니었다. 밤사이에 1)중공군과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미처 날라 가지 못했던 식량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갈가마귀떼처럼 몰려들어 가마니를 열었다. 그리고 악을 쓰면서 자루에다 쌀과 수수를 집어넣는다. 쌀과 수수가 강변에 흩어진다. 사람들은 <굶주린 이리떼>처럼 2)눈에 핏발이 서서 자루에 곡식을 넣어 짊어지고 일어섰다. [지문중반]

⇒<굶주린 이리떼>는 중공군과 인민군이 후퇴하면서 미처 날라 가지 못했던 식량1)을 사수하려는 모습2)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냉혹한 존재로 변해 버렸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 *두 작품에서 사람들이 죽는 장소가 군사들이 대치하는 전선만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1)전쟁터란 전장과 후방, 가해자와 피해자가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이다. [2문단]

(다) *2)김씨 댁 아주머니와 윤씨도 허겁지겁 달려들어 쌀을 퍼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자루 끝을 여민 뒤 머리에 이고 일어섰다. 3)그 순간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꺼지는 듯 고향 소리, 총성과 함께 윤씨가 폭 쓰러진다. 윤씨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쌀자루 위에 얼굴을 처박는다. 거무죽죽한 피가 모래밭에 스며든다. [지문중반]

⇒‘식량’을 얻으려다가2) 인물(윤씨)이 죽게 되는 것3)은 전장과 후방이 구분되지 않는 혼돈의 현장1)을 보여 주는 것이로군.

②

(가) *이 소설에서는 전장을 재현하여 전쟁의 폭력에 노출된 개인의 연약함이 강조되고, 무고한 희생을 목도한 인물의 내면이 드러남으로써 1)개인의 존엄이 탐색되었다. [1문단]

(나) *2)사람들은 <갈가마귀떼>처럼 몰려들어 가마니를 열었다. 그리고 악을 쓰면서 자루에다 쌀과 수수를 집어넣는다. 쌀과 수수가 강변에 흩어진다. 사람들은 굶주린 이리떼처럼 눈에 핏발이 서서 자루에 곡식을 넣어 짊어지고 일어섰다. [지문중반]

⇒(가)의 개인의 존엄 탐색1)을 바탕으로 <갈가마귀떼>는 전쟁으로 인해 기본적인 존엄성마저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2)을 상기하게 하는군.

※문학에서 <새의 상징성>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접동새(두견이): 한, 슬픔
- ㄴ. 까마귀: 흉조, 부정적 세력
- ㄷ. 까치: 길조, 행운

④

(가) *이 소설에서는 전장을 재현하여 1)전쟁의 폭력에 노출된 개인의 연약함이 강조되고, 무고한 희생을 목도한 인물의 내면이 드러남으로써 개인의 존엄이 탐색되었다. [1문단]

(나) *그 순간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꺼지는 듯 고향 소리, 총성과 함께 윤씨가 폭 쓰러진다. 2)윤씨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쌀자루> 위에 얼굴을 처박는다. 거무죽죽한 피가 모래밭에 스며든다. [지문중반]

*쌀자루를 꼭 껴안고 있다. 3)<쌀자루>는 피에 젖어 거무죽죽하다. [지문후반]

⇒피에 젖은 ‘쌀자루’2~3)는 전쟁의 폭력이 무고한 인물에게 끼친 전쟁의 상흔1)을 나타내는군.

⑤

(가) *한편, 「시장과 전장」은 한국전쟁이 남긴 상흔을 직시하고 이에 좌절하지 않으려던 작가의 의지가, 이념 간의 갈등에 노출되고 1)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을 통해 허구화되었다. [1문단]

(다) *2)지영은 윤씨를 안아 일으킨다. 그리고 들춰 엮는다. 그는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음을 옮긴다. 윤씨를 엮고 <벼랑을 기어 오른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지문후반]

⇒<벼랑을 기어오른다>는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의 처지1~2)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군.

25. <소설>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7%	4%	4%	77%	6%	9%

◆정답 ③

(다)

*<김씨 부인>이,

“애기 엄마…….”

하고 소리쳐 부른다. 지영은 그냥 쫓아간다.

1)“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애기를 어찌려고 그러는 거요.”

2)<지영>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는 듯 달려간다. 독길을 넘었다. 강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강물도 하늘도 강 건너 서울도 회색빛 속에 싸여 있었다. 3)지영은 <윤씨>를 내려다본다. 쌀자루를 꼭 껴안고 있다. 쌀자루는 피에 젖어 거무죽죽하다. 지영은 윤씨를 안아 일으킨다. 그리고 들춰 업는다. [지문후반]

⇒(다)에서 지영은 윤씨 때문에 3) 김씨 부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 강변으로 나갔다.2)

*원인: 강변에 죽어 있는 ‘윤씨’

*결과: 강변으로 나간 ‘지영’

◆오답 풀이

①

(나)

*1)박씨가 주렴을 드리우고 부채를 쥐어 불을 부치니, 불길이 오랑캐 진을 덮쳐 오랑캐 장졸이 타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여 다 도망하는지라.→(용골대의 화공 실패) 용골대가 할 길 없어,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었으니, 어찌 분한(憤恨)치 않으리오.” 하고 2)회군하여 발행할 제, 왕대비와 세자 대군이며 장안 미색을 데리고 가는지라. [4문단]

⇒(나)에서 용골대는 화공이 실패하자 1) 회군하는 것 2)이지 화살로 피화당을 공격한 것은 아니다.

*화공: 전쟁 때에, 불로 적을 공격함.

*화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 없이 가까이 지냄.

②

(나)

*박씨가 시비 계화로 하여금 외쳐 왈,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 놈이 무식하여 은혜지국(恩惠之國)을 침범하였거니와, 1)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하리라. 만일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니 오랑캐 장수들이 가소롭게 여겨, “우리 이미 화친 언약을 받고 또한 인물이 나의 장중(掌中)에 매였으니 그런 말은 생심(生心)도 말라.” 하며, 혹 2)욕을 하며 듣지 아니하거늘, 박씨가 또 계화로 하여금 다시 외쳐 왈, 3)“너희가 일양 그리하려거든 내 재주를 구경하라.”~[5문단]

⇒(나)에서 박씨가 회군하는 오랑캐군을 공격 3)한 이유는 왕대비를 데려가지 못한다 1)는 박씨의 말에 욕을 하며 무시 2)했기 때문인 것이지, 오랑캐군이 화친 언약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④

(다)

*1)“여보,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다시 물었으나 여전히 그들은 뛰어간다. <윤씨>와 김씨 덕 아주머니도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고 2)그들을 따라 뛰어간다. 그들이 간 곳은 <한강 모래밭>이었다. [지문중반]

⇒(다)에서 윤씨가 식량을 마련 1)하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도교가 아니라, <한강 모래밭>이다. 2)

⑤

(다)

* 1)“피란 안 갔다고 야단맞지 않을까요?”

<윤씨>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김씨 덕 아주머니>의 얼굴도 잠시 흐려진다. 그러나 이내 쾌활한 목소리로,

2)“쌀 배급을 주는데 야단을 치려구요? 세상에 불쌍한 백성을 더 이상 어찌겠어요?” [지문초반]

⇒(다)에서 <윤씨>는 피란 안 갔던 것을 걱정 1)하는 것이고 <김씨 덕 아주머니>는 이런 <윤씨>를 안심시키려 한 것 2)이다.

26. <소설>

#서술상의 특징 #성격 제시 방법 #원인_이유 #분석_구분_분류 #대화_독백_방백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2%	4%	1%	2%	1%	92%

◆정답 ⑤

*1)사람들은 갈가마귀떼처럼 몰려들어 가마니를 열었다. 그리고 2)악을 쓰면서 자루에다 쌀과 수수를 집어넣는다.~3)사람들은 굶주린 이리떼처럼 눈에 핏발이 서서 자루에 곡식을 넣어 깊어지고 일어섰다. 4)쌀자루를 깊어지고 강변을 따라 급히 도망쳐 가는 사나이들, 쌀자루에 쌀을 옮겨 넣는 아낙들, 필사적이다. 그야말로 전쟁이다. 5)김씨 택 아주머니와 윤씨도 허겁지겁 달려들어 쌀을 퍼낸다. 그리고 6)떨리는 손으로 자루 끝을 여민 뒤 머리에 이고 일어섰다. [지문중반]

⇒인물의 연속적인 행위(1~6)를 제시하여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필사적인 식량 사수)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인물의 회상과 인물 간의 뚜렷한 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에 대해 알아보자!

- ㄱ. 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얼 먹지)
- ㄴ. 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 / 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②

*강물도 하늘도 강 건너 서울도 1)회색빛 →(저녁 무렵) 속에 싸여 있었다. [지문후반]

⇒시간적 배경을 묘사(1)한 것이라고 볼 만한 부분은 있으나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성격 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직접- (소심, 차분, 완벽하다 등)
- ㄴ. 간접- 말과 행동을 통해 제시

③

⇒인물의 경험을 관념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사건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지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아니다.

▶(관념적, 추상적) VS (구체적, 실제적)의 구별은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원인 vs 이유>를 구분해 보자.

- ㄱ. 원인: 어떤 사물이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
- ㄴ. 이유: 어떠한 결론이나 결과에 이른 까닭이나 근거.

*<분석 vs 구분 vs 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 ㄱ. 분석: 대상을 개별 요소나 성질로 쪼갬.
(곤충을 머리, 가슴, 배로 쪼갬)
- ㄴ. 구분: 상위 대상을 하위 대상(종류)으로 나눔.
(과일을 사과, 배, 감 등으로 나눔)
- ㄷ. 분류: 하위 대상(종류)을 상위 대상으로 묶음.
(사과, 배, 감 등은 과일로 묶음)

⇒비슷해 보이는 분석과 구분의 차이점은 분석된 개체(머리, 가슴, 배) 자체를 곤충이라 할 수 없으나 구분된 대상들(사과, 배, 감)은 자체를 과일이라 할 수 있다.

④

⇒대화가 있지만 과거로 돌아가려 하는 인물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독백과 대화, 방백>에 대해 알아보자!

- ㄱ. 독백: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혼자 말함.
- ㄴ. 대화: 청자를 의식하고 상대와 말을 주고받음.
(시에서 말을 건네는 방식도 대화로 봄)
- ㄷ. 방백: 극문학에서 상대가 옆에 있어도 화자의 말을 못들은 것으로 간주.

⇒큰 마음표가 있다고 해서 모두 <대화>로 보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말을 주고 받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게 <대화>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김씨 택 아주머니는,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하고 물었으나 그들은 미친 듯 뛰어갈 뿐이다. →(답이 없음)

“여보, 여보시오! 어디서 배급을 줍니까?”

다시 물었으나 여전히 그들은 뛰어간다. →(답이 없음)

[지문중반]

* 김씨 부인이,

“애기 엄마…….”

하고 소리쳐 부른다. 지영은 그냥 쫓아간다. →(답이 없음)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얘기를 어쩌려고 그러는 거요.”

지영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는 듯 달려간다. →(답이 없음)

[지문후반]

“평가원 이의신청”

23번 문제

선지 ④ 또한 바르지 못한 것이기에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적과 불의한 존재를 동일시 하는 것과 관련된 문장은 오로지 *우리 편의 죽음은 불의한 적에 의한 희생으로 간주된다.* 뿐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박씨의 비난이 적인 오랑캐군이 불의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표현 할 수 없고, 만약 이 선지가 올바른 것으로서 정답이 아니기 위해서는 *박씨의 비난을 통해 오랑캐군을 불의한 존재로 간주함을 드러내고 있다/알 수 있다.* 라고 표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적=불의한 존재)인 것을 판단하는 근거를 단 하나로 생각한 것이 잘못되었다. 은혜지국을 침범한 사실 자체가 불의(의리, 도의, 정의 따위에 어긋남)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선지의 근거를 지문에서 단 하나로 국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독해이다.) 그래서 박씨의 비난(오랑캐군이 은혜지국을 침범)만으로도 오랑캐군이 불의한 존재임을 드러내는데 부족하지 않다.

※27~32

(가) 김수영의 <구름의 파수병>

*갈래: 자유시, 서정시

*주제: 소시민적 일상에 안주하려는 자신에 대한 질책과 시 정신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의지.

*감상의 길잡이

☞이 시는 자신의 생활과 예술을 응시하고 있는 ‘나’를 통해 현실에 순응하는 생활과 그것에 반역하는 삶 사이에서 고뇌하는 시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시와는 반역된 생활’과 일상 생활에 대한 ‘반역의 정신’이라는 의미의 대립 구조를 통해 일상에 안주하는 구태의연한 삶과 그것의 전복을 꿈꾸는 시인 자신의 모습을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생활인이자 시인인 ‘나’는 자식과 아내와 살림살이’, 그리고 일상의 ‘잡스러운 물건’들을 보면서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신의 삶이 ‘먼저 낀 잡초’위에 ‘잠자는 구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시와는 반역된 생활’에 대한 자책감과 비애감은 시인으로서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든다. 결국 시인인 그가 생활의 무거움을 뚫고 ‘가야할 길’은 자신의 생활을 전복시킴으로써 그 의미를 갱신하는 ‘시’와 ‘반역의 시 정신’이 충만한 삶의 세계임을 깨닫는다.

(나) 이강백의 <느낌, 극락같은>

*갈래: 희곡

*주제: 예술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깨달음

*줄거리:

함요진은 60대이다. 불상 제작가로서 명성을 얻은 함요진은 대단히 자부심이 강한 인물이다. 그러나 노년에 이르러 불상 만드는 솜씨가 예전만 못하고, 건강하였던 육신마저 하반신 마비 증세에 시달리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다. 동연과 서연은 함요진의 제자로서 둘 다 30대 초반이다. 동연은 스승보다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다. 얼굴은 윤곽이 뚜렷하고 체격은 단단한 근육질이다. 서연은 동연에 비해 평범한 모습이지만 사려 깊은 심성을 가지고 있다.

작품의 외형만을 추구하는 동연과 내면의 근원에 집착하는 서연의 예술혼을 통한 대립과 갈등으로 예술의 진정한 모습과 예술가의 올바른 태도를 탐구하고 있다. 결국 동연은 스승에게 인정받고 스승의 딸인 함이정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서연은 자신의 예술 세계에 희의를 느끼고 전국 각지를 떠돌며 고행의 수련을 통해 예술 세계의 오묘한 진리를 터득하기에 이르나, 심신의 허약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감상의 길잡이

☞불상의 제작에서 형태와 내용을 둘러싼 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 주제에 접근하고 있는 작품이다. 형태를 중요시하는 동연과 부처의 마음인 내용을 중요시하는 서연이 형성하는 수평적 관계와 ‘함요진-함이정-조송인’이 이루어 낸 수직적 관계가 맞물리면서 형태와 내용 중 그 어느 쪽만을 편협하게 강조하기보다 양쪽의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예술적 완성에 이르게 됨을 나타낸다.

27. <현대시>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1%	4%	91%	2%	2%	2%

◆정답 ②

* 그리고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고
1)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3연]

⇒화자는 <나의 친구>가 방문한 뒤에 나의 <그릇됨>을 자각(꾸짖음)시켜도 된다1)는 것이지 <나의 친구>가 방문했기 때문에 화자의 <그릇됨>이 비로소 자각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성찰)**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1연]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성찰) [2연]

⇒화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

▶'차분히 보는 것', '~아는 것', '깨달음', '성찰', '반성'은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③

*1)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철 늦은 거미같이 2)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 [4연]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1)에서 존재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2)고 느끼고 있다.

④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며
1)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2)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6연]

⇒화자는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1) 비참한 존재로 인식2)하고 있다.

⑤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1)시를 반역한 죄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2)구름의 파수병인 나. [끝연]

⇒화자는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죄'1)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2)으로 규정하고 있다.

*파수병: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병정.

28. <현대시>

#보기 제시 #시의 어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5%	2%	85%	3%	4%	6%

◆정답 ㉔

*그리고

1)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 있는데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고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 [3연]

<보기>

*㉔은 2)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나는 이미 정해진~결심하고'1)는 ㉔의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2)에 해당하는 것이지 ㉔과 ㉕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정해진 물체만 보기'→(㉔의 시선 고정과 관련)

◆오답 풀이

①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1)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성찰)
그러면 나는 2)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 [1연]

<보기>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3)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2)에서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1,3)의 어조가 느껴지는군.

▶'차분히 보는 것', '~아는 것', '깨달음', '성찰', '반성'은 모두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시적 어조>?

:시적 자아에 의해 표현되는 목소리의 특징
→(시의 분위기나 정서 및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음)

※<시적 어조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

- 1)청자의 유무: 독백조, 대화조
- 2)화자의 유형: 남성적, 여성적 어조
- 3)청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 명령, 찬양, 의문, 청유 등
- 4)화자의 감정 상태: 걱정적, 영탄적, 관조적, 애상적, 긍정적 등
- 5)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냉소적, 친화적, 비판적, 우호적, 풍자적, 해학적 등

③

*날아간 제비와 같이 자국도 꿈도 없이
어디로인지 알 수 없으나
1)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 [7연]

<보기>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2)㉡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1)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서 ㉢으로 나아가려는2)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④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시를 반역한 죄→(반역의 정신)로
이 1)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 [끝연]

<보기>

*㉠에서 벗어나 2)㉢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화자가 ‘메마른 산정’1)에서 지향하는 ‘반역의 정신’은 ㉢이 추구2)하는 것이겠군.

⑤

*나는 지금 산정에 있다 -
시를 반역한 죄→(반역의 정신)로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그리고 그 1)구름의 파수병인 나. [끝연]

<보기>

*「구름의 파수병」에는 2)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나 움츠러들어 있는 이미지로 나타나는데, ㉡에서 벗어나 3)㉢<시를 새롭게 지향하는 자아>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구름의 파수병」1)은 두 자아의 갈등2)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3) 화자의 의식(→반역의 정신)이 반영된 이미지가겠군.

29. <현대시+회곡>

#열거_반복_대구 #연쇄법 #반어_역설 #미니 칼럼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4%	84%	10%	1%	2%	25

◆정답 ①

[A]

1)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2)쑥스러울 수가 있을까

⇒[A]는 대상을 나열1)함으로써 화자의 정서2)가 촉발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열거, 반복, 대구에 대해 알아보자!

- ㄱ.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 ㄴ.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
(눈, 눈, 눈이 내린다!) ☞운을 형성!
- ㄷ.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 ☞운을 형성!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오답 풀이

②

[B]

함미정: (서연 곁으로 가서 개울물을 바라본다.) 1)물 위에 비쳐 보여요, 우리 얼굴이……얼굴 뒤엔 구름이……구름 뒤엔 하늘이……. (물을 떠서 마신다.)물이 맑고 시원해요.

⇒[B]는 의미가 확장되는 대상들의 연쇄1)가 있지만 마신 물을 시원하게 느낄 뿐이지 인물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혼란스러운 내면이라면 반드시 고민, 고통 등 부정적인 의미의 어휘가 언급되기 마련이다.

※연쇄법: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첫머리에 이어받아 이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수사법.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고인을 못 봐도 예던 길 앞에 있네→예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예고 어이리)

③

[A]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1)썩스러울 수가 있을까

[B]

(물을 떠서 마신다.) 2)물이 맑고 시원해요.

⇒[A]의 대상들은 화자의 만족이 아닌, 썩스러움1)을 [B]의 대상들은 인물의 불만이 아닌, 만족2)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④

[A]

1)방 두 칸과 마루 한 칸과 말쑥한 부엌과 애처로운 처를 거느리고

[B]

함이정: 물 위에 비쳐 보여요, 2)우리 얼굴이……얼굴 뒤엔 구름이……구름 뒤엔 하늘이…….

⇒[A]에서는 대상들이 연속적으로 나열되어 있고 화자가 이를 거느린다1)는 것이지, 화자와 대상들 간의 연속성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B]에서는 공동체적 표현인 우리2)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인물 간의 단절감이 암시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A]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이다지도 1)썩스러울 수가 있을까→(설의법: 매우 썩스럽다!)

[B]

함이정: (물을 떠서 마신다.) 2)물이 맑고 시원해요.→(직접적인 표현)

⇒[A]와 [B]는 화자나 인물의 심리적 상황(썩스러움, 시원함)이 나타나 있지만 설의적으로 표현1)되어 있거나 직접 드러나 있는 것2)이지 <반어적>으로 표현된 것은 아니다.

※<반어 v s 역설>에 대해 알아보자.

ㄱ. 반어: 겉표현과 속마음이 반대.

(지각한 학생에게 “참 빨리도 왔다” 라고 비꼬)

ㄴ. 역설: 겉표현은 모순되지만 깊은 속 뜻 나타냄.

(님은 갔지만 님을 보내지 않았다)

♣초미니 칼럼!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선지 ①이라면 과연 나머지 ②~⑤를 봐야하나? 그냥 넘어가야 하나?

☞이것은 시간 관리가 생명인 국어 시험에서 한번쯤은 해보았을 고민이다. 대개 쿨한 성격의 수험생들은 그냥 넘어가고 완벽주의적 성격의 수험생들은 모두 다 검토한다. ①로 정답을 확신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시간을 절약하여 남들보다 문제 푸는 속도가 빠르다는 심리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선지를 보지 않은 찝찝함이 남을 수 있고 정답이라고 확신한 ①이 착각을 해서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완벽주의적 수험생들은 모든 선지를 다 꼼꼼히 검토하여 온전하게 문제를 풀었다는 심리적 편안함은 있겠지만 시간 절약의 측면에서는 남들보다 아무런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어느 방법이 누구에게나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답의 가능성을 약 80%이상 확신한 선지가 있다면 거기서 멈추고 적절한 표시를 한 뒤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긴장감 높은 국어 시험에서는 킬러 문제에 최대한 풀이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고득점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문제를 모두 풀 뒤 남은 시간을 활용해서 보지 못한 선지를 검토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30. <회곡>

#무대 상연 전제 #갈등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1%	4%	81%	4%	10%	2%

◆정답 ㉔

(㉔)1)상복을 벗고 밝은 색 옷을 입은 함이정과 조승인. 2)무대 앞으로 나온다.)

⇒㉔: 등장인물들의 의상 교체1)로 장면 전환을 나타낸다.2)

◆오답 풀이

①

㉑)한가운데 펼쳐 있던 천막이 접혀지면서 1)무대 천장 위로 올라간다.

⇒㉑: 무대 장치가 무대 위로 이동하기1) 때문에 새로운 하나의 극중 공간이 생기는 것이지 기존의 극중 공간을 좌우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다.

③

(서연과 함이정, 일어선다. 돌부처를 만들면서 길을 따라간다. 물 흐르는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온다. ㉓)조명,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낸다.)

⇒㉓: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조명 변화를 통해 등장인물들의 갈등 해소를 보여 준다고 볼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다.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에 대해 알아보자!

- 1) **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 2) **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④
.....
(㉔조승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 중이다.)

⇒㉔: 등장인물인 조승인이 피아노로 작곡을 하는 모습이 무대 위에 나타나는 것이지 무대 밖에서 피아노로 음향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다.

↳ 무대 밖의 효과음이라면 별도로 <효과음>이라고 표시를 하기 마련이다.

⑤
.....
(㉔함묘진이 다급하게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들어온다.)

⇒㉔: 다급한 것으로 보아 극적 긴장감이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품(휠체어)을 통해 극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31. <현대시+희곡>

#보기 제시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4%	5%	5%	3%	84%	3%

◆정답 ④

(나)
*(서연과 함이정, 일어선다. **돌부처를 만들면서 <길>을 따라**간다.)

*함이정: (서연 곁으로 가서 개울물을 바라본다.) 물 위에 비쳐 보여요, 우리 얼굴이.....얼굴 뒤엔 구름이.....구름 뒤엔 <하늘>이..... (물을 떠서 마신다.)물이 맑고 시원해요.

*함이정: 오빠.....뭘 하는 거죠?
서연: 돌부처를 만든다.
함이정: 돌부처요?
서연: 1)돌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 물이라고 안 될 건 없지.

*서연과 함이정, 잠시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본다. 2)조승인이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며 작곡 중이다.

⇒(나)의 '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 서연의 예술관1)이 나타나는 곳으로 물 속에서 본 <하늘>과 대비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으며 서연의 예술관1)이 피아노를 두드리는 조승인2)에게 전수되는 공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
(가)
1)<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 [6문단]

⇒(가)의 한정된 공간인 <집>과 한정되지 않은 <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1) 화자에게 대비적으로 인식되었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②
.....
(가)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1)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 [2문단]

⇒(가)에서 생활공간과 대비되는 <먼 산정>은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응시1)하기 위해 상정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③
.....
(나)
함묘진: <작업장>엔 너희들이 없더구나!

서연: 1)'동연'은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처의 마음도 있다→(부처의 외양과 마음은 일체)고 했습니다.

함묘진: 그런데, 너는?
서연: 그런데 저('서연')는.....2)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부처의 외양과 마음은 별개) 했습니다.

⇒(나)에서 <작업장>은 불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연'과 '서연'의 예술관이 부딪치는1~2)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⑤
.....
(나)
서연: 그런데 저('서연')는.....1)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부처의 외양과 마음은 별개) (예술의 본질 중시) 했습니다.

함이정: 오빠, <이쪽>으로 나와요.
서연: (개울물을 건너가며) 난 이제 <저쪽>으로 간다.
함이정: 서연 오빠.....
서연: 넌 나중에 건너와.
함이정: (손을 흔든다.) 그래요, 오빠.....먼저 가요. 나는 나중에.....

조승인: 할아버지,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함묘진: 극락문이 열렸다! 극락문이 열렸어!

(함묘진, 휠체어에서 일어난다. 그는 2)서연의 뒤(저쪽)를 따라 빛안으로 들어간다. 무대 조명, 변화한다. 동연, 등장한다. 그는 조승인에게 다가와서 전보 용지를 내놓는다.)

⇒(나)의 개울물 <저쪽>은 개울물 <이쪽>과 대비되는 곳으로 예술의 본질1)을 추구하던 (극락에 해당하는) 서연이 도달하게 되는2)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대비: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대비라고 해서 반드시 반대의 맥락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두 대상 간의 차이점만 있어도 대비라고 볼 수 있다.)

32. <희곡>

#등장인물 #이해 #갈등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93%	2%	2%	93%	2%	1%

◆정답 ③

*조승인: 1)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
→(할아버지의 목청이 큰 것에 부정적임) ⇨(‘평’에 해당)

함이정: 귀머거리도 들을 정도야. 그치? →(상대의 말에 호응)

동연: 2)말다툼 때문에……서로 의견이 달라서요.

함묘진: 말다툼?

동연: 네.

서연: 동연은 3)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처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의 외양과 마음은 일체)

함묘진: 그런데, 너는?

서연: 그런데 저는……4)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부처의 외양과 마음은 별개) ⇨(예술의 본질 중시)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1)라는 대사에서 조승인은 등장인물(할아버지)의 행동을 ‘평’하지만 다른 인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예술관의 차이3~4)로 서로 의견이 달라 말다툼이 일어난 것2)은 조승인의 대사1)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평: 좋고 나쁨, 잘하고 못함, 옳고 그름 따위를 평가함.

◆헛갈림 주의!

*A: 원인, B: 결과

A가 B를 유발함 = A는 B의 계기가 됨 = A로 인해 B가 일어남
=A가 B를 불러 일으킴 = A 때문에 B가 일어남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에 대해 알아보자!

1) 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2) 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오답 풀이

①

조승인: 1)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어머니.

~

함이정: 2)그땐 좋았다. 두 분 다 우리 집에서 가족처럼 살면서, 우리 아버님한테 불상 제작을 배우는 제자였지. 3)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불상 제작장에 가 보니까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 →(과거의 ‘사건’에 해당) ~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3)라는 대사는 과거의 이야기를 해달라는 조승인의 요청1)에 함이정이 대답을 하는 과정이므로 극 중의 <사건>을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지문 2)도 과거의 일과 관련된 것이지만 <사건>이라고 볼 만한 것은 3)부터 시작되므로 3)의 대사에서부터 극 중의 <사건>을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소설에서의 <사건>은 꼭 갈등을 일으키는 것만으로 한정하면 안 된다. 주목할 만한 일은 모두 <사건>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자.

②

조승인: 네. 제가 태어나기 전, 1)어머니의 처녀 시절부터요. 그때 두 분 아버지의 관계는 어땠죠?

함이정: 그땐 좋았다.~2)몹시 화가 난 아버님(함묘진)은 집 안으로 들어와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지. 3)“동연아! 서연아!” 아버님 목소리가 어찌나 찌렁찌렁 울렸는지, 천 리 밖까지 들릴 것 같더라.

*(<조명, 밝게 변화한다. 한가운데 펼쳐 있던 천막이 접혀지면서 무대 천장 위로 올라간다. 4)함묘진의 집. 5)함묘진이 성장 모습으로 등장한다.>~)

함묘진: 6)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

함이정: (무대 밖에서) 여긴 없어요, 아버지.

⇒현재 시점의 대사3)가 과거를 배경으로 한 무대4)를 바탕으로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6)라는 대사로 연결되며 함묘진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1) 이야기 속의 인물들을 무대로 등장5)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④

*서연: 1)동연은 부처의 모습을 만들면, 그 모습 속에 부처의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함묘진: 그런데, 너는?

서연: 그런데 저는……2)부처의 모습을 만들어도, 부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했습니다.

동연: 사부님, 서연을 꾸짖어 주십시오. 3)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갈등의 양상

*서연: 부처의 형상과 마음은 별개 → ('내면' 중시) ⇨ ('본질' 관련)

*동연: 부처의 형상과 마음은 일체 → ('외형' 중시)

⇒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 갈등의 주체는 서연과 동연 1~2)이고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3)는 둘 사이의 갈등을 나타내는 대사이므로 동연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 갈등의 한 축으로서 기능한다는 ④는 적절하다.

⑤

서연: 1)돌로도 부처님을 만드는데, 물이라고 안 될 건 없지.
→ (재료에 따른 형상은 상관없음) ⇨ ('내면' 및 '본질'을 중시)
(서연, 흐르는 물 속으로 들어가 물로 만든 부처를 세워 놓는다. 부처의 느낌 → '내면' 및 '본질'은 남고 형태는 사라진다.)

⇒ "돌로도 부처님을~안 될 건 없지." 1)라는 대사에서 알 수 있듯 서연은 작품의 주제 의식('내면' 및 '본질' 중시)을 전달하는 인물 중 하나로 기능한다.

※33~36, <반추 동물의 소화와 미생물>

1)*탄수화물: -동물 생존에 필수적인 에너지원.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
*사람: 비섬유소만 에너지원으로 이용.
*반추동물: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

2)*반추 동물: -여러 종류의 미생물이 서식.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 및 배출
*반추위의 아세트산: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과 체지방 합성에 이용.
*반추위의 숙신산: 생성된 프로피온산으로 포도당을 합성 재료로 이용.

3)*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 배출 대사산물이 다름.
*반추위의 젖산: 에너지원으로 직접 이용되거나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

4)*반추 동물이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

S의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남 → 과도한 양의 젖산이 배출 →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짐 →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 → 다량의 젖산을 배출 →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짐 → 생장이 감소.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이하로 더 떨어지면 생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산성에 더 강한 L을 비롯한 젖산 생성 미생물들이 반추위 미생물의 많은 부분을 차지.

33. <과학>

#헛갈리기 쉬운 문장 구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6%	5%	7%	4%	8%	76%

◆정답 ⑤

*1)'F'는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 수를 늘림으로써 2)생장한다. [2문단]

⇒ '피브로박터 숙시노젠(F)'은 자신의 세포 내에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 1)하여 생장한다. 2)

◆오답 풀이

①

*<사람>은 체내에서 합성한 효소를 이용하여 곡류의 녹말과 같은 1)<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2)이를 <소장>에서 흡수하여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반면, 3)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나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1문단]

⇒ 사람의 <소장>에서 <포도당>의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섬유소'가 아니라 <비섬유소>이다. 1) <섬유소>는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가 합성되지 못하므로 소장에서 포도당의 공급원으로 이용되지 못한다. 3)

◆지문1): 헛갈리기 쉬운 문장 구조

*1)<비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
→ <비섬유소>를 분해하여 <포도당>으로 만들 (○)
→ <비섬유소>를 가지고 <포도당>을 분해 (×)
→ <포도당>을 가지고 <비섬유소>를 분해 (×)
(*분해의 대상은 '비섬유소')
⇨ <비섬유소>는 <포도당>의 공급원 (○)
⇨ 이렇게 만들어진 <포도당>을 <소장>에서 흡수하여 사람의 에너지원으로 이용. 2)

★독해가 어려운 근본 이유는 어려운 낱말에도 있지만 그보다 더한 것은 문장의 구조를 대충대충 따져보는 습관에 있는 것이다. 관련 사례가 나올 때마다 이 교재를 통해 문장 성분 간의 구조와 호응을 정확히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자.

②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소, 양, 사슴과 같은 1) <반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간다.

[1문단]

⇒ <반추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셀룰로스를 분해하는 합성 효소를 만들지 못한다.1)

③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는 1)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반추위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문단]

⇒ <반추위 미생물>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사멸하는 것이 아니라, 왕성하게 성장한다.1)

④

※지문의 첫문장과 끝문장의 조합

*1) <반추 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하면~2) 그렇게 되면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되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한다. [끝문단]

⇒ <반추 동물>의 <급성 반추위 산성증>을 유발2)하는 것은 과도한 섬유소 섭취가 아니라, 과도한 <비섬유소>를 섭취1) 때문이다.

34. <과학> ☆오답률 5위☆

#이해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8%	8%	14%	12%	58%	9%

◆정답 ④

*반추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⑤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도 서식한다.~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의 1) 산성도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 [3문단]

*이에 따라 산성의 환경에서 왕성히 성장하며 2) 항상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③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L)와 같은 젖산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며 다량의 젖산을 배출하기 시작한다. [4문단]

⇒ ⑤는 반추위의 산성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을 배출 1) 하지만 ③은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이 아닌, 항상 한 종류인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 2) 한다.

*지문: '대사산물이 달라짐' → 선지: '다양한 대사산물'

◆오답 풀이

①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만일 1) 자신(③)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성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들다.~그러나 2) S(⑤)도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그 이하로 더 떨어지면 성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들고,~그렇게 되면 반추위의 3) pH가 5.0 이하가 되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한다. [끝문단]

⇒ ⑤가 생장이 멈추면 <급성 반추위 산성증>에 걸린 상태 2~3)이며 <급성 반추위 산성증>은 pH가 5.0 이하가 되는 경우 3)로 ④도 당연히 성장을 멈추게 된다. 1) 그래서 <급성 반추위 산성증>에 걸린 ④와 ⑤가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서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①은 적절하다.

②

*그중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은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1)〈반추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2)〈체지방〉을 합성하는 데에도 쓰인다. [2문단]

*반추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도 서식한다.~3)〈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3문단]

⇒㉠은 <반추위〉에서 반추동물의 <체지방〉을 합성2)하는 <아세트산〉을 생성1)하고 ㉢도 마찬가지로 <반추위〉에서 반추 동물의 <체지방〉을 합성2)하는 <아세트산〉을 생성2)한다.

◆문장이 길면, 주어-목적어-서술어에 집중하자.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은~〈반추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에도 쓰인다.

⇒㉠은 <아세트산〉을 생성.+<아세트산〉은 <체지방〉을 합성.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도 서식한다.~〈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

⇒㉢는 <아세트산〉을 배출(=생성)

③

*산성도를 알려 주는 1)수소 이온 농도 지수(pH)가 7.0 정도로 <중성>이고 성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3문단]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2)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3)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생장이 감소한다. 만일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로 떨어지면 에너지가 소진되어 성장을 멈추고 사멸하는 단계로 접어든다. 이와 달리 S와 4)L(㉢)은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성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한다. [끝문단]

⇒반추위의 pH가 6.0일 때에는 중성의 상태가 아니므로1) ㉠은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2)으로 인해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사용한다.3)

그러나 ㉢는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거의 사용하지 않4)기 때문에 ㉢처럼 반추위의 pH가 6.0일 때, ㉠은 ㉢보다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볼 수 있다.

*항상성: 생체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명 현상이 제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⑤

*반추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도 서식한다.~만면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1)<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의 성장 속도가 빠를 때는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3문단]→(원인 문단)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중성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특성이 있는데, 젖산 농도의 증가로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낮아지면 자신의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2)생장이 감소한다.~이와 달리 S와 L(㉢)은 상대적으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해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5 정도까지 떨어지더라도 이에 맞춰 자신의 세포 내부의 pH를 낮출 수 있어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거의 사용하지 않고 3)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한다. [끝문단]→(결과 문단)

▶문단 간의 관계 및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관건

*원인: [3문단] +결과: [끝문단]

⇒반추위에서 <녹말의 양>과 ㉢의 생장이 증가1)할수록, ㉠의 생장은 감소2)하고 ㉢의 생장은 증가3)한다.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 먼저 전체 주어-서술어 파악에 집중하자!

*F(㉠)를 비롯한 섬유소 분해 미생물들은~2)생장이 감소한다.

*S와 L(㉢)은~3)생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한다.

35. <과학> ☆오답률 3위☆ (수능 9개년 중 13위)

#보기 제시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39%	39%	10%	6%	33%	11%

◆정답 ①

※지문과 <보기>의 대응성

*반면, 사람은 풀이나 채소의 주성분인 <셀룰로스>와 같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므로, 섬유소를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1문단]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는데, 이 환경에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반추위 미생물들은 다양한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중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은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 식물체에서 셀룰로스(→섬유소)는 그것을 둘러싼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F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이 구조를 끊어 셀룰로스(→섬유소)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1)F(→'미생물')는 '섬유소'를 분해해 생긴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섬유소는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됨')하여 생존을 유지하고 개체 수를 늘림으로써 2)성장한다.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하고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하고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3)반추위에서 미생물들이 생성한 아세트산(→대사산물)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주로 이용되고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에도 쓰인다. [2문단]

*반추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도 서식한다. 4)이 미생물은 반추 동물이 섭취한 녹말(→비섬유소)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 이 포도당을 자신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비섬유소는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됨') 이때 S는 자신의 세포 내의 산성도에 따라 세포 외부로 배출하는 대사산물이 달라진다. 산성도를 알려 주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pH)가 7.0 정도로 중성이고 성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반면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성장 속도가 빠를 때는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5)반추위에서 젖산(→대사산물)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보기>

*반추 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㉞: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1,4) 이를 이용하여 성장2)하는 ㉟: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은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3,5)되기 때문이다.

◆실제 시험 때의 풀이 방법론,

☞처음부터 ㉞과 <보기>의 이유-결과의 관계성을 따졌다가는 멘붕이 올 수 있으므로 <보기>에 맞는 선지를 골라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편하다.

※먼저, <보기>의 ㉞에 들어갈 내용은 둘 중에 하나,

Q. 보기: 반추위에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선지: (①,②) 미생물의 <에너지 원>이 된다?
(③~⑤)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된다?

↓↓↓

Q. 보기: 반추위에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선지: (①,②) 미생물의 <에너지 원>이 된다.1,4) (○)
(③~⑤)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된다.(X)
☞(<포도당>은 미생물에 의해 합성이 아닌, <분해>로 생김)

※다음, <보기>의 ㉟에 들어갈 내용도 둘 중에 하나,

Q. 보기: ㉟를 통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것은?
선지: ①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된 '대사산물'.
②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된 '포도당'.

↓↓↓

Q. 보기: ㉟를 통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것은?
선지: ①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된 '대사산물'.3,5) (○)→(정답)
②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된 '포도당'. (X)
☞(<포도당>은 미생물의 <분해>로 생기는 것이지,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되는 것이 아님)

※종합하면,

☞지문 ㉞에서 <반추동물이 비섬유소와 섬유소를 모두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며 살아>가는 구체적 내용(→이유)이 <보기>에 해당 하는 것이다.

<보기>

*반추 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반추위에서 ㉞(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 이를 이용하여 성장하는 ㉟(반추위 미생물이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한 대사산물)은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36. <과학>

#비교형 선지 정답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8%	7%	5%	78%	5%	5%

◆정답 ③

*1)산성도를 알려 주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pH)가 7.0 정도로 <중성>이고 생장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아세트산>, <에탄올> 등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반면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생장 속도가 빠를 때는 <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3문단]

⇒중성일 때 배출되는 대사산물은 <아세트산>, <에탄올>이기1) 때문에 <숙신산>과 <젖산>이 중성일 때 많이 배출된다는 선지 ③은 적절하지 않다.

☞<젖산>은 산성도가 높을 때 배출되는 대사산물이다.

◆오답 풀이

①

*한편 반추위에서 1)<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의 에너지원) 이 과정에서 생성된 2)<프로피온산>은 반추 동물이 간(肝)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대사 과정에서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2문단]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의 에너지원이기1) 때문에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반추 동물의 간에서 합성되는 <포도당>의 양도 늘어난다.2)

▶지문: A, B 연관+B, C 연관 →적절 선지: A와 C 연관

②

*반추위에서 1)<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3문단]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1)될 수 있다.

④

*그중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은 섬유소를 분해하는 대표적인 미생물이다.~이런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 1)<숙신산> 등이 대사산물로 발생하고 이를 자신의 세포 외부로 배출한다. [2문단]

*반추위에는 비섬유소인 녹말을 분해하는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도 서식한다. 이 미생물은 반추 동물이 섭취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고,~반면 산성도가 높아져 pH가 6.0 이하로 떨어지거나 녹말의 양이 충분하여 생장 속도가 빠를 때는 2)<젖산>이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3문단]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의 세포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생성1~2)된다.

⑤

*한편 반추위에서 1)<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2문단]

*반추위에서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아세트산 또는 2)<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3문단]

⇒<숙신산>과 <젖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1~2)되기도 한다.

★굉장히 유용한 팁★

♣ 출제자의 심리: 잘못된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에서 두 대상을 비교하는 선지가 나오면 그것이 정답일 확률은 상당히 높다! (2배, 3배 등 수치까지 나오면 더 확률이 높아짐) 왜냐하면, 출제자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숫자 등을 사용해 틀린 선지를 만드는 일이 다른 오류가 있는 선지를 만드는 것보다 비교적 쉽기 때문에 수치가 들어간 선지를 정답으로 자주 설정한다.

* 위 문제의 경우, 부정형 발문이며 선지 ③에만 비교하는 내용이 나온다.

③ 숙신산과 젖산은 반추위가 <산성일 때>보다 <중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 ☞(정답☆)

※정답 선지만이 유일하게 수치 비교가 있음!

*(2016 수능 A 16번) 정답 선지

⑤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2배가 된다.

*(2016 수능 A 18번) 정답 선지

④A에 가해 주는 힘을 제거한 상태에서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의 **4배이다**.

*(2016 수능 B 22번) 정답 선지

③노나카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본다.

☆한 시험에서 3 문제나! 이것은 우연이라기 보단 출제자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이다! 5개의 선지 중에서 비교 형태의 선지가 있다면 이를 먼저 검토해봐야 정답을 1초라도 빨리 만날 수 있다.

“평가원 이의신청”

35번 문제를 보면 섬유소와 비섬유소는 뒤에 ㄱ문항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보면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라고 되어있죠. 1번이 정답이 되려면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 포도당>이라고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섬유소와 비섬유소 자체가 에너지원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특히 뒤에 이를 이용하여 성장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까지 합치면 더욱더 포도당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오류인 것 같습니다.

☞ 섬유소와 비섬유소 자체가 에너지원은 되지 않지만 <분해된 포도당에 의해 에너지원이 되는 것>은 맞다. 종합하면, <섬유소와 비섬유소가 분해된 포도당에 의해 에너지원이 되는 것>에서 <보기>는 ㉔에 들어갈 말에 <분해된 포도당>을 생략한 것이다. 이를 생략해도 <섬유소와 비섬유소가 에너지원이 된다>는 사실이 틀린 것은 아니다. 비유하자면, <철수는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갔다>에서 <자전거를 타고>를 생략했다고 <철수는 학교를 갔다>는 사실이 틀리지 않은 것과 같다.

35번 문제,
지문 내용에 따르면 **반추 동물이 섭취한 섬유소와 비섬유소를 분해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한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섬유소와 비섬유소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섬유소와 비섬유소 그리고 포도당의 경우 완전히 다른 물질로 섬유소와 비섬유소, 포도당을 같은 물질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세 물질을 같은 '에너지원'으로 칭한 1번 선지의 ㉔에 대해 이의를 신청합니다.

☞ 포도당의 근원은 <섬유소와 비섬유소>이기 때문에 <섬유소와 비섬유소>를 근원적 에너지 <포도당>을 직접적인 에너지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세 물질은 넓은 맥락으로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써 동일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36번 문제,

36번 일치하지 않는 문항을 고르는 것이었는데 선지 2에서 '젖산은 반추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지문에는 **반추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되거나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이라고 되어있고 사전에서 에너지원의 정의를 찾아보면 '**생물에 생명의 유지, 성장, 운동 등 그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근원**'과 같이 나오므로 에너지원=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르게 옳지 않으므로 2번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문-선지를 잘못 대응시켰다. (에너지원=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이 아니라

(지문: 젖산~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 = (㉔: 젖산~에너지원으로 이용) 이기 때문에 선지 ㉔는 적절하다.

※37~42, <공정한 보험의 원리>

1) **보험**: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조건의 실현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가 달라짐.

2)

***보험금의 공정성**: 개인 납부 보험료 = 수령 보험금의 기댓값
전체 보험료 총액 = 보험금 총액이 일치

***(보험료율: 보험료/보험금) = (사고 발생률)**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 (사고 발생 확률) × (수령 보험금)**

3) ▶ **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보험사의 지급 보험금의 총액이 증가.

→보험료를 인상 불가피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

4) **보험 계약시 고지 의무**: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

5)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발생.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 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 →해지권은 제한적.

6) **보험의 고지 의무 기능**: 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

37. <사회>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2%	5%	7%	82%	4%	2%

◆정답 ③

*본래 보험 가입의 목적은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받는 데 있으므로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속한 위험 공동체의 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공정>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2문단]

*물론 현실에서 보험사는 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험료에 반영하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이 적용되기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산정한 다. [3문단]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4문단]

*이로써 사고의 위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고자 하는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끝문단]

⇒지문의 주요 내용이 <공정한 보험>, <고지 의무>, <보험의 목적>과 관련된 것임을 통해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는 선지 ③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1)<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4문단]

⇒보험 계약에서 <보험 가입자>가 준수해야 할 내용에 관한 것 1) 있어도 보험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②

⇒보험사의 보험 상품 판매 전략이 아닌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의무>를 살펴보는 것이다.

④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법적 의무>를 살펴보는 것이지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나열한 후 경제적 해결책과 법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다.

⑤

⇒언급된 법률 내용은 공정한 보험을 위한 것이지 보험 상품의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38. <사회>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3%	5%	5%	8%	73%	9%

◆정답 ④

*1)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이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2)<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4문단]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1)을 근거로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거절2)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1)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 [5문단]

⇒보험 가입자의 승낙 없이도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하다.1)

②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1)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2문단]

⇒<공정한 보험>은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1)해야 한다.

③

*<보험>은 같은 위험을 보유한 다수인이 위험 공동체를 형성하여 1)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1문단]

⇒<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1)이기 때문에 보험 사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는 ③은 적절하지 않다.

⑤

*1)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 상법은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다. [5문단]

⇒<보험사에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보험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리면 <고지 의무>를 위반1)할 때이지 보험 가입자보다 보험사의 잘못을 더 중시하기 때문이 아니다.

39. <사회> ☆오답률 2위☆ (수능 9개년 중 5위)

#1항목 후순위의 법칙 #보기 제시 #이해 #계산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29%	12%	19%	17%	22%	29%

◆정답 ⑤

[가]

*이때 1)<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2)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보험료율이 사고 발생 확률보다 높으면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많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이 보험금 총액보다 더 적게 된다. 따라서 3)<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보기>

*A와 B에 모두 4)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각 구성원이 납부할 보험료와 사고 발생 시 지급받을 보험금을 산정하려고 한다.

*지문 1~3)을 정리해보면,

- 1) <보험금 기댓값> = <사고 발생 확률> × <수령 보험금>
→<사고 발생 확률> = 보험금 기댓값/수령 보험금
- 2) <보험료율> = 보험료/보험금
- 3) (공정한 보험): <보험료율> = <사고 발생 확률>
→<보험료율> = <사고 발생 확률> = 보험료/보험금

*1~3)을 종합하면,
(보험금 기댓값/보험금) = (보험료/보험금) = <사고 발생 확률>

☞<보험금 기댓값> = <보험료>☜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3~4)되는 상황에서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도 서로 같다.

*보험료: 고객이 내는 돈

*보험금: 고객이 받는 돈

★대단히 복잡해 보이지만 막상 정리해 보면 별거 없다. 선지에 언급된 항목으로 계산식 3개를 꼼꼼히 따져보면 그만이다.

◆오답 풀이

①

[가]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1)<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이때 2)<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 기댓값'과 '보험금'은 정비례)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1)해야 하기 때문에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도 두 배가 된다. 이때 <보험금>에 정비례하는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도 높아지게 된다.

*다른 풀이,

☞정답 ⑤의 정리된 결론 <보험금 기댓값> = <보험료>에 따라 <보험료>가 두 배가 되면 <보험금 기댓값>도 두 배가 되기 때문에 ①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에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선지의 정오 판단에 활용되니 잘 정리해 두자.

②

[가]

*따라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구성원 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1)<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2)<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 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보험금 기댓값'과 '보험금'은 정비례)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1)해야 하기 때문에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보험료>도 두 배가 된다. 이때 <보험금>에 정비례하는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도 두 배로 높아지게 된다.

♣지문에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선지의 정오 판단에 활용되니 잘 정리해 두자.

③

[가]

*1)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보기>

*2)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A와 B에 모두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고 할 때,

※(공정한 보험): <보험료율> = <사고 발생 확률>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하는데 1) A, B는 <사고 발생 확률>이 서로 다르므로 2) <보험료율>이 같을 수 없다.

④

[가]

*1)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보험료/보험금)을 <보험료율>이라 하는데, ~따라서 2)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

<보기>

*사고 발생 확률이 각각 0.1과 0.2로 고정되어 있는 위험 공동체 A와 B가 있다고 가정한다.

※지문 1~2)를 정리해 보면,

1) <보험료율> = 보험료/보험금

2) (공정한 보험): <보험료율> = <사고 발생 확률>

☞ <보험료율> = <사고 발생 확률> = 보험료/보험금

⇒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서로 같다면

<사고 발생 확률> = <보험료>가 된다.

B의 사고 확률(0.2)이 A의 사고 확률(0.1)의 두 배 이기 때문에 B에서의 <보험료>는 A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가 된다.

★1항목 후순위의 법칙

☞ 문제의 지문 혹은 제시문이 A, B 등의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고 선지에서는 그 항목을 1개 혹은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다. 이때 <항목을 1개만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항목을 2개 이상 가져와 설명하는 선지>보다는 많이 낮다.

위 문제의 경우 선지 ①, ②가 각각 A 혹은 B 1개만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다른 선지보다는 정답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를 고려하고 항목 2개 이상을 가져와 설명한 선지 ③~⑤를 먼저 더욱 집중해서 보는 것은 정답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날 수 있는 풀이법이다.

“위와 같은 문제만이라도 선지를 꼭 ①에서 ⑤의 순서대로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자.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정답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능 국어의 생명인 문제 풀이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40. <사회>

#선지 오류의 법칙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8%	68%	6%	8%	6%	12%

◆정답 ①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1)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 [5문단]

⇒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해지권만 행사1)하는 것이지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②

*여기서 (고지 의무의) ‘중요한 사항’은 1)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거나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4문단]

⇒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따라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데 도움1)이 된다.

③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1)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3문단]

*2)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끝문단]

⇒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파악 및 검증1~2)하기 때문에 보험 계약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드는 어려움을 줄여 준다.

④

*결국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1)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데 보험 가입자의 위험 정도에 대한 정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보다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감춰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3문단]

우리 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2) <고지 의무>는 이러한 수단이 법적으로 구현된 제도이다. [4문단]

⇒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에서 기인하는 문제1)를 줄일 수 있는 법적 장치2)이다.

*비대칭성: 양 쪽이 동일(공평)하지 않음을 비유.

⑤

*따라서 <고지 의무>는 결과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1)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거나, 이를 이유로 아예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 [4문단]

⇒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1)하는 효과가 있다.

★유용한 팁★

♣ 선지 오류의 법칙!

①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 법(고지 의무)을 위반한 이(가입자)가 손해 배상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 배상을 한다는 선지 ①은 **지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며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부정형 발문에서 100% 답이 된다.**

★ 자체 오류의 선지는 부정형 발문에서 지문을 보지 않고도 100% 정답이 되며 이런 선지가 수능에 자주 출제 되었다.

③ (다)를 활용하여, UCC 제작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UCC 제작 경험이 있는 학생들과 달리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수단이 없음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2015 수능의 정답 선지)

→ UCC 제작 경험과 스트레스 해소 수단과는 상식적으로 서로 관련성이 없어 선지 오류임

③ (가)의 ‘소리’와 (나)의 ‘바람’은 자유의 의미와 대비되는 소재들로서, 화자는 이에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2013 수능 정답 선지)

→ ‘소리’와 ‘바람’의 속성은 장애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영향력을 미치는 속성이 있다. 이를 자유의 의미와 대비된다고 표현한 선지 ③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표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① 글쓰기 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배경 지식은 배제한다. (2015 수능 정답 선지)

→ (독서 할 때뿐만 아니라 작문을 할 때에도 배경 지식은 글을 효과적으로 쓰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배경 지식을 오히려 작문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보고 배제하는 경우를 거의 생각해 보기 힘들다. 그래서 지문과는 상관없이 선지 자체가 성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기 매우 어려워 부정형 발문에서 거의 정답에 가깝다)

⑤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발표 내용을 요약해야겠어. (2015 6월 평가원 정답 선지)

→ 말하기의 종류인 발표하기, 마무리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은 대부분 말하기의 중간 중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선지 ⑤는 지문 내용과 상관없이 잘못된 선지일 가능성이 크다.

41. <사회> ☆오답률 7위☆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61%	10%	6%	18%	61%	6%

◆ 정답 ④

*그러나 1)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해지권은 행사할 수 있다. [5문단]

⇒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에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기1) 때문에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보험사인 A는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오답 풀이

①

*1) <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2)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5문단]

⇒ 보험금을 돌려받으려면 <해지를 해야> 하는데1)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인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2)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헛갈림 주의!**

A: (보험사)가 과실이 있는 경우. →(‘해지권’은 보험사만 관련)
 B: (보험 가입자-고객)의 과실이 아님!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됨!**

① 계약 체결 당시 1)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나 2)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사가 잘못했는데1)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2) (X)

★만약 적절하지 않는 부정 발문형 문제라면 40번 문제의 <선지 오류의 법칙>처럼 지문과 상관없이 바로 정답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이나 이후에 상관없이 1)<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권 행사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가능하다.[5문단]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인 A의 중대한 과실이나 보험금 지급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1)할 수 있다.

③

*1)<해지를 하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게 되며, 이미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그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2)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5문단]

▶**두 요소의 관계 파악이 관건!**

<A: 중대한 과실>

<B: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

⇒보험금은 돌려받으려면 <해지를 해야> 하는데 1) 계약 체결 당시 보험사인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2)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출제자의 함정!**

☞출제자는 <A에게 중대한 과실>과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이 서로 대립적인 요소인 듯 설정했는데, 실제로는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을 몰랐다는 자체가 A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A:중대한 과실>=<B: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 위반>를 모름 그래서 <B 또한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의 내용은 빼 놓고 선지의 적절함을 판단할 수 있다.

⑤

◆**상식적으로 혹은 문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선지!**

B가 자신의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즉시 알렸다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고지 의무 위반>을 이미 한 것을 전제하는데 ~ 때문에 <고지 의무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선지 자체의 오류에 해당한다.

(마치 무단 횡단을 하고 차가 하나도 안 다니므로 무단 횡단을 한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논리랑 똑같다)

★만약 적절하지 않는 부정 발문형 문제라면 40번 문제의 <선지 오류의 법칙>처럼 지문과 상관없이 바로 정답으로 판단해야 한다.

42. <어휘> ☆오답률 6위☆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59%	59%	5%	2%	24%	10%

◆**정답 ①**

*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②**대비**할 수 있다.

④<대비>: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함.

*지난해의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을 세웠다.

⇒<대비>: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 함.

☞‘미리 준비하는’ <대비>와 ‘비교하는’ <대비>는 서로 동음이의어이다.

◆**오답 풀이**

②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개개인이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⑤**파악**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책정하기 어렵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악>: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앎.

☞내용이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위험의 정도> 혹은 <상황>에 해당함.

③

*보험사는 이를 보전하기 위해 구성원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

⇒<인상>: 물건값, 봉급, 요금 따위가 오르다.

☞물건값, 봉급, 요금 따위에 해당하는 것이 <보험료>나 <임금>이다.

④

*계약 당시에 보험사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

*이번 실험이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배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제외의 대상이 되는 것이 <보험사의 해지권> 혹은 <실패할 가능>이다.

⑤

*보험에서 고지 의무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의 특성을 검증함으로써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부당하게> **㉢전가**되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한다.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했다.

⇒<전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줌.

☞<부당한 보험료를 다른 가입자에게> 혹은 <실수에 대한 책임을 동료에게>에 넘겨줌을 나타냄.

☆국어 실력의 근원은 영어와 마찬가지로 어휘력이다. 이는 독해력 신장의 기본이기도 하다. 어휘를 무한정 공부할 수 없으니 쉬운 어휘라도 기출에 나오는 것들은 한번 씩이라도 되새겨 보고 지나가자.

“평가원 이의신청”

39번 문제에서 보면 A의 사고 발생 확률은 0.1, B의 사고 발생 확률은 0.2입니다. 제시된 지문에서 <가>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가 발생할 확률에 사고 발생시 수령할 보험금을 곱한 값이라고 되어있습니다. 5번 선지를 확인해보면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서로 같다면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같다고 되어있습니다. 사고 발생 확률에 따라 기댓값이 달라진다고 지문에서 제시가 되었는데 왜 답이 5번인가요?

답은 1번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B가 받는 보험료를 x라고 가정하고 식을 세워보면

A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 0.1 * 2x

B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 0.2 * x이기에 같은것 아닌가요?

확인해주시고 답변바랍니다.

☞지문에 제시된 것은 <‘사고 발생 확률’에 따라 ‘기댓값’이 달라진다>가 아니라 <‘사고 발생 확률’에 ‘수령 보험금’을 곱한 값이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다. 선지 ⑤에 전제된 것은 보험료가 서로 같다는 것이지, 수령 보험금이 서로 같다는 것이 아니다. 보험료와 보험금을 혼돈한 질문이다.

(*보험료: 고객 지불, *보험금: 고객 수령)

※43~45, 홍순학의 <연행가>

*갈래: 기행가사

*주제: 청나라 연경을 다녀온 견문과 여정

*전체 구성:

- [1] 삼사에 뽐힌 자랑스러움과 무거운 책임감
- [2] 구경나온 중국의 여인들과 아이들의 모습
- [3] 청나라의 풍속과 문화 (주거문화, 음식문화)
- [4] 청나라의 풍속과 문화 (잠승치기, 아이 기르기)

*감상의 길잡이

고종 3년, 고종이 왕비를 맞이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유후조를 정사(正使)로 한 사신 일행이 중국으로 가게 되었을 때, 사신의 서장관(書狀官)이었던 홍순학이 지은 작품이다. 고종 3년 4월 9일에 한양을 출발하여 같은 해 8월 23일 돌아올 때까지의 총 133일 동안 보고, 듣고, 느낀 이국의 문물과 풍속, 인물 등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객관성있게 비판적으로 기록하고 소개한 기행가사이다. 가사 작품으로는 드물게 장편인 탓에 노정이 자세하고 서술 내용이 풍부하여 다른 가사에 비해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 왔다. 그리하여 김인경의 <일동장유가>와 더불어 조선 전기의 양반 가사를 계승하는 대표적인 후기 가사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곡(曲)을 전제로 한 노래가 아니요, 주정적이고 주관적인 서정시도 아니고, 산문정신과 영합하여 다분히 서사적인 수필 내용에 가까워, 조선전기가사의 음풍영월(吟風詠月)적인 서정의 세계에서는 벗어나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시각(관점)을 보면, 홍순학의 관심은 어느 한 곳에 편중되어 있지 않고 다방면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의 역사는 물론이고 중국의 역사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하여 기행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역사의 현장마다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관을 토대로 한 선택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한편 작가는 반청의식(反淸意識)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중국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대부분 친명반청(親明反淸)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어 풀이>

만권이나 될 정도로 많은 책을 탁자 위에 쌓아 놓고
 ㉠자명종(시계)과 자명악(악기)은 저절로 소리가 나며
 좌우로 당전(양탄자), 담방석, 백전요(이불) 등을 깔아 놓은 곳에
 ㉡청나라와 조선 양측이 의자에 서로 마주 걸터앉고
 청나라 사람들이 인사로 차를 갖다 준다
 차를 잔에 가득 부어 권하는데
 푸르고 노란 빛의 향기가 가득한데
 서로 언어가 달라서
 말 한마디 못하고 덤덤히 앉아 있으니
 귀머거리 병어리인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글은 같아 글로 말을 하고자 한다

벼루의 먹에 붓을 찍어

종이로 글을 써서 전달을 하니

대화를 주고받으니

서로 한 마음이였다.

(중략)

청나라 황제가 우리 조선 사신 일행에게 상을 내리는 의식을 거행한다.

통역관, 말 관리자, 사내들까지

돈과 비단을 받아 놓고

절하여 모리를 조아린 후 돌아오니

잔치를 베푸는 것을 예부에서 지휘하기로 하며

대청 위에 상을 차려 놓은 모양

청나라의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다 한 사람씩 앞에 받아 놓으니

비위가 좋지 않아 먹을 것이 없네

술 석 잔을 마시고 잔치가 끝나 일어서서

뜰에 내려 황제가 있는 북쪽을 향해 감사의 예를 표한 후

관소로 돌아와 돌아갈 날짜를 정하니

㉢점을 싸느라 다들 어수선하고

외상 값을 세는 것만 같다

㉣왕에게 보고 할 문서를 미리 보내고

7월 11일에 돌아가니

청나라에서 한 달하고도 오 일을 있다 떠나려니 마음이 시원하다

하늘 한 쪽 끝처럼 우리 서울 갈 길이 너무 멀다

바람과 먼지가 부는 가운데 집 소식 끊긴지 오래되었으니

사오 개월 타국에 나와 있는 내 신세에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깊다

송문문을 통해 통주로 향해 가니

㉤올 적에 한 참 곡식을 심더니만 지금은 추수가 한창이요

바람이 쌀쌀하여 가을빛이 심하게 난다.

43. <고전시가>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74%	3%	3%	74%	7%	13%

◆정답 ③

*1)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화차중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파르스름 노르스름 향취가 만구하데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답답함)

*2)추칠월 십일일에 <회환>하여 떠나오니
 한 달 닷새 유하다가 시원하고 상연(爽然)하구나

→객지에서 의 낮선 풍물 및 경험에 대한 정서(답답함)를 드러내
 고1) <회환>할 때의 심정(시원함)을 서술하고 있다.2)

◆오답 풀이

①

*1)서풍이 삽삽하여 가을빛이 쾌히 난다

⇒자연에 대한 단편적이 서술1)이 있을 뿐이지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을 장황하게 서술한 것은 없다.

*사물: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자연물: 자연계에 있는, 저절로 생긴 물체.
→('자연물'은 '사물'의 일부에 해당함)

②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羊毫鬚筆) 덩뻑 적어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학문과 관련된 사물(벼루, 붓, 종이)이 나열되어 있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아 문자로 대화를 하기 위함이지 입신양명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④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락가락
1)간담을 상응하여 정곡(情曲) 상통(相通)하는구나

*상마연 잔치한다 예부에서 지휘하기로
삼 사신과 역관들이 예부로 나아가니
대청 위에 포진하고 상을 차려 놓은 모양
메밀떡에 밀다식에 걸맘 머루 비자(櫃子) 등물(等物)
푸닥거리 상 벌이듯 좌우에 떠벌였다
다 각기 한 상씩을 앞에만 받아 놓으니

2)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것이 전혀 없네

⇒공식적인 한 행사에서 마음을 단순히 나타내거나2) 다른 행사에서는 사람들의 동일한 마음을 나타낼1) 뿐이지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개성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⑤

*1)관소로 돌아와서 회환(回還) 날짜 택일하니
2)사람마다 짐 동이느라→(여정 마무리) 각 방은 분분하고

⇒귀국까지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을2)을 알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날짜를 택일1)한다고만 했지 (몇 월 며칠과 같은) 구체적인 시간이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다.

44. <고전시가>

#이해 #계절감 #심상과 감각 #열거_대구_반복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5%	3%	5%	3%	4%	86%

◆정답 ⑥

*㉠울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을)가 한창이요

→계절감(→추수)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심은 곡식이 추수될 때까지 시간의 경과를 보여 주고 있다.

▶계절은 직접적인 어휘(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로 금방 알 수 있지만 (봄-새싹, 여름-매미, 가을-낙엽, 겨울-눈) 등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자명종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청각적(→울어 소리하며) 이미지를 사용했지만 객관적 서술일 뿐이지 대상이 지닌 슬픔(주관적)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자명종: 미리 정하여 놓은 시각이 되면 저절로 소리가 나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시계.

*자명악: 태엽을 이용하여 저절로 소리가 나게 만든 악기.

※시의 심상과 감각에 대해 알아보자!

- ㄱ.시각-눈으로 보는 것 (푸른산, 높은 하늘, 빨간꽃)
- ㄴ.청각-귀로 듣는 소리 (은은한 종소리)
- ㄷ.미각-혀가 느끼는 맛 (쓰디쓴 약)
- ㄹ.후각-코로 맡는 냄새 (향기로운 꽃)
- ㅁ.촉각-피부의 느낌 (서늘한 옷자락)

☞<시각적 심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 중 색깔, 모양, 크기, 움직임 등과 관련이 있으면 해당된다. 이러한 시각적 심상을 빼고 시를 창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는 일단 감각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감각 VS 복합 감각에 대해 알아보자!

ㄱ.공감각: 한 감각이 다른 감각 불러일으킴.
→(주관적 심리 상태에 영향)

ㄴ.복합 감각: 각각의 감각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음.

*푸른(시각) 휘파람 소리(청각)
→원래의 청각이 새로운 시각을 불러일으킴 [공감각]

*노란(시각) 빛깔의 달콤한(미각) 오렌지
→시각과 미각의 단순한 나열일 뿐 [복합 감각]

②

*1) 좌우에 탁자 놓아 만권 서책 쌓아 놓고
 자명종과 자명악은 절로 울어 소리하며
 좌우에 당전(唐氈) 깔고 담방석과 백전요며
 ㉠ 이편저편 화류교의(樞榴交椅) 서로 마주 걸터앉고

⇒ 지시적 표현(이편저편)을 사용하지만 낮선 환경1) 속에서의 낯설음을 나타내는 것이지 상대와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③

*㉡ 사람마다 집 동이느라 각 방은 **분분**하고
 ⇒ 음성 상징어(분분하고)를 사용하여 이동을 앞둔 분주함을 나타내는 것이지 여유로운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분분하다: 떠들썩하고 뒤숭숭하다.

④

*㉢ 장계(狀啓)를 발정(發程)하여 선래 군관(先來軍官) 전송하고
 ⇒ 왕에게 보고할 문서를 미리 보내는 것이지, 대구적 표현이 사용되지도 않았고 새로운 계획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다.

*장계: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 또는 그런 문서.

*발정: 길을 떠남.

※ 열거, 반복, 대구에 대해 알아보자!

- ㄱ. 열거 (나열): 비슷한 말을 늘어놓음.
 (딸기, 포도, 사과는 과일의 종류이다.)
- ㄴ. 반복: 동일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
 (눈, 눈, 눈이 내린다!) **☞ 운을 형성!**
- ㄷ. 대구: 문장의 동일한 구조를 짝지어 줌 **☞ 운을 형성!**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45. <고전시가>

#감상 #3점

정답률	선지별 선택비율				
	①	②	③	④	⑤
84%	84%	4%	4%	6%	2%

◆정답 ①

[A]

*1) 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귀머거리 병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언어가 달라 서로 답답해 함)

천하의 글은 같아 필담이나 하오리라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 양호수필(羊毫鬚筆) 덤뻑 찍어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락가락 →(답답함이 해소됨)
 <간담을 상응>하여 정곡(情曲) 상통(相通)하는구나

[B]

*<뜰에 내려 북향하여> 구고두 사례한 후

⇒ [A]에서 <간담을 상응하여>는 언어가 달라 서로 답답했던 마음1)이 같았었다는 말이지,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B]에서 <뜰에 내려 북향하여>는 고국에 있는 임금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이지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 북향의 의미를 정확히 몰라도 사례한다는 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아 부정적인 의미의 거부감과는 관련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간담: 속마음을 비유.

◆오답 풀이

②

[A]

*1)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
 화차중에 대를 받쳐 가득 부어 권하거늘

[B]

*2)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
 <삼 사진>과 역관이며 마두와 노자(奴子)까지

⇒ [A]에서 '우리들'은 <거기 사람>에게 인사로 <차>를 대접받
 고, 1) [B]에서 <삼 사진> 일행은 <예부상서>를 통해 황상의 상
 을 하사받고 있군. 2)

③

[A]

*천하의 글은 같아 <필담>이나 하오리라
당연(唐硯)에 먹을 같아 양호수필(羊毫鬚筆) 댄뻑 찍어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1)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락가락

[B]

*2)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
삼 사신과 역관이며 마두와 노자(奴子)까지
은자며 비단 등속 차례로 받아 놓고
삼배(三拜)에 <구고두(九叩頭)>로 사례하고 돌아오니

*구고두: 3)공경하는 뜻으로 머리를 땅에 아홉 번 조아림.

⇒[A]에서 <필담>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1)하는 수단을,
[B]에서 <구고두>는 의례적 상황2)에서 감사를 표하는 공식적
예법3)을 나타내는군.

④

[A]

*1)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귀머거리 병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대화 불가)
~
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 글씨 써서 말을 하니
묻는 말과 대답함을 <글귀 절로 오락가락>

[B]

*2)푸닥거리 상 벌이듯 좌우에 떠벌였다
다 각기 한 상씩을 앞에다 받아 놓으니
<비위가 뒤집혀서> 먹을 것이 전혀 없네

⇒[A]에서 <글귀 절로 오락가락>은 언어가 달라 대화하지 못하
는1) 난처한 상황이 해소되고 있음을, [B]에서 <비위가 뒤집혀
서>는 정성껏 대접해 준 음식2)을 먹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드러내는군.

⑤

[A]

*1)저희들과 우리들이 언어가 같지 않아
말 한마디 못 해 보고 덤덤하니 앉았으니
<귀머거리 병어린 듯> 물끄러미 서로 보다

[B]

*2)대청 위에 포진하고 상을 차려 놓은 모양
<메밀떡에 밀다식에 걸밤> 머루 비자(櫃子) 등물(等物)

⇒[A]의 <귀머거리 병어린 듯>은 언어가 달라1) 대화가 이루어
지지 못하는 상황을, [B]의 <메밀떡에 밀다식에 걸밤> 등은 연
려 가지 음식을 차려 놓은 상황2)을 알려 주는군.

“2017 수능 실전 후기”

★<D.V>님의 98점 후기

솔직히 말하자면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해서 1학년 때부터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1등급이 나왔습니다. 다만 올해는 유형이 바졌는데 그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9월에도 1등급 컷에 걸린 점수라서 약간 걱정이 되기는 했습니다.

화작문: 화작은 16수능보다 쉽더군요. 문법은 13번이랑 15번이 헷갈렸지만 시간 관리차원에서 선지 압축해놓고 넘어갔습니다. 16수능은 화작문 끝났을 때 20분 지나있었지만 올해는 15분 컷했습니다.

포퍼지문: 포퍼지문은 이전에 기출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철학 지문이랑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지문은 어려웠지만 답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손가락 걸기하고 별 문제 없이 넘어갔어요 객적으로는 가장 어려웠던 지문

박씨전: 뭐 이건 거져주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느낌, 극락 같은: 이 것도 거져주는 문제 였다고 생각합니다
 섬유소지문: 정보량은 많았지만 이전에 a형 기출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던 형태라서 차분히 푸니까 안 꼬이고 답이 나왔습니다
 보험지문: 그 쪽 관련해서는 배경지식이 있어서 지문도 쉽게 읽혔고 선지도 명확했어요
 연행가: 연행가는 알고 있는 작품이라서 쉽게 풀렸던 것 같습니다.

여기 까지 하고 답안 마킹하고 가채점표 작성하니까 20분 남았습니다. 일단 손가락 걸기했던 포퍼지문 꼼꼼히 읽으면서 답에 확신을 갖고, 13번 15번 검토 들어갔습니다. 13번은 처음에 5번 했다가 3번으로 바꿀까 말까 고민하다가 작년 수능에 문법 문제 막판에 고쳤다가 틀린 기억이 있어서 안 바꿨습니다. 15번은 피동, 사동 개념을 자세히 안 외었지만 그냥 국어적인 감으로 접근해서 답을 도출해냈습니다. 예상 1등급 컷 94-96 작년 수능하고 난이도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예상 내 점수 95-100 13번 빼고는 딱히 막히는 문제가 없어서 일등급은 무난히 나올거라고 생각했어요 1교시 끝나고 국어영역 잘 본거 같아서 이대로만 보면 연고대 하위과는 무난히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움무카라이싸티마우>님의 98점 후기

처음에 페이지 면수확인할 때 문학연계 뭐 됐나 보는데 하필 연행가에 그 뭐더라 그거 극락? 아무튼 한번 보기는 봤는데 나올 가능성 적다 생각해서 대충 본 것들 나왔을 때 멘탈 터질 뻔 멘탈 잡고 풀기시작

화작문이 그날따라 되게 잘 풀렸음 화작문 다 풀고 포퍼 풀러니까 8시55분이었고 포퍼가 쉬워서 다 푸니까 9시?쯤 됨 근데 시장과 전장 아예 처음 보는 소설 나와서 좀 해메고 극락에서 존나 해 면... 극락이랑 같이 있던 현대시도 처음 보는 거라 힘들었고 거기까지 다 푸니까 9시25분인데 13문제 남았음 다행히 올해 비문학길이가 길어진 대신 난이도 자체는 작년보다 훨씬 하락한 느낌이라 다 푸니까 15분 남음.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평이했고 69평보단 좀 어려웠고 작년수능보단 쉬웠음. 결국 연행가하나 틀려서 98

★<호>님의 92점 후기

화작문 20분 걸렸고 13번 틀림.

비문학 첫 지문 포퍼.
 아침에 가장 마지막으로 봤던 연계 지문이 포퍼 지문이었는데 그거 제대로 못 보고 시험 들어갔음ㅠ
 근데 그게 나올 줄이야.. 여기서 1개 틀리고

<느낌, 극락 같은>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았는데 진짜 나옴.. 보길 잘한 듯. 연계 작품 중에 내용 좀 어려운 편이었는데 여기서 시간 좀 벌고 들어감

미생물 지문 혁혁대면서 다 풀고 넘기니까 보험 지문.. 보자마자 일단 바로 넘기고 연행가부터 품.

보험 지문까지 다 풀고 나니까 30초 남아서 가채점표 다 적지도 못하고 일단 패스

시험 다 끝나고 국어 시험지 다시 봤는데, 미생물 지문에서 34번, 36번을 제가 체크를 뭘 했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풀 때는 이걸 100% 맞을 거야 하면서 풀긴 했음

그 2개가 다 맞는다면 92점.

2회

2016 수능 A형

정답

1. ④	2. ②	3. ①	4. ④	5. ③
6. ⑤	7. ④	8. ③	9. ④	10. ③
11. ③	12. ③	13. ④	14. ②	15. ②
16. ⑤	17. ②	18. ④	19. ②	20. ③
21. ③	22. ⑤	23. ①	24. ⑤	25. ⑤
26. ①	27. ①	28. ③	29. ⑤	30. ②
31. ①	32. ③	33. ④	34. ①	35. ⑤
36. ⑤	37. ①	38. ⑤	39. ③	40. ⑤
41. ②	42. ④	43. ⑤	44. ④	45. ③

영역별 평균 정답률

영역	평균 정답률
종합	76.5%
화법+작문	91%
문법	65%
독서 (비문학)	69%
문학	81%

등급컷

등급	원점수	비율(%)
1	96	3
2	90	11
3	82	24
4	72	40
5	60	59
6	47	77
7	35	89
8	25	96

오답률 TOP 7 문항

순위 (오답률)	문항·영역	제재	역대 9개년 수능 중
1위(49%)	30번 어휘	*	33위
1위(49%)	33번 어휘	*	33위
3위(44%)	41번 고전시	강호사시가	45위
4위(35%)	20번 기술	광다이오드	*
4위(35%)	27번 사회	기판력	*
6위(34%)	29번 사회	기판력	*
7위(30%)	11번 문법	음운변동	*